

# 鄭經世·李垞의 鯀齋觀

- 鄭經世의 비판적 흡수론과 李垞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정경세와 이준 : 相似와 相反의 켈로십
- III. 정경세와 이준의 '소재인식'
- IV. 노수신의 도남서원 제향의 양면성 : 의도적 폄박과 석연찮은 수용
- V. '소재변호론'의 殘像 : 이준의 문자적 변명과 그 한계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의 통치 이념은 朱子學이었고, 그 주자학은 사상적 획일성 또는 純血性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權力'이 되었다. 이 배타적 권력의 이념적 통제의 감각 장치는 불교·도교 등 여타 敎學 체계는 물론 유학 내부로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작동하였다. 그 선봉에 그들에 의해 '동방의 주자'로 예칭되었던 이황이 嚴峻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노수신의 학문은 刻苦의 산물이었지만 그 내용은 질신했고, 그 쓰임은 輔君·經世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16세기 중엽 조선 학계의 宗主 李滉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 배척은 하나의 烙印이 되어 이황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고전번역학 조교수 / ksoya@aks.ac.kr

의 후학들에게 대물림되었다.

이 글은 같은 퇴계연원이었지만 盧守愼에 대한 인식은 사뭇 달랐던 정경세와 이준의 시선을 ‘비판적 흡수론’과 ‘계승적 변호론’으로 분절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성형제로까지 일컬어졌던 두 사람은 노수신에 관한 사안에서만큼은 왜 더없이 긴장했던 것일까? 그것은 주자학 또는 퇴계학의 純血性을 강조했던 권위론과 작은 허물보다는 큰 성과에 착목해야 함을 역설했던 절충론의 충돌에서 기인했고, 17세기 초반 영남학계는 후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절충론 내지 변호론의 좌절은 이황의 권위에 대한 숙임의 과정이었고, 그 종착점은 퇴계학의 권력화였다.

◆ 주제어

盧守愼, 李滉, 柳成龍, 鄭經世, 李垞, 退溪學派, 穌齋學脈, 道南書院

## I. 머리말

숙종조 노론계 인물이었던 李宜顯은 자신의 저술 ‘陶峽叢說’에서 盧守愼(1515~1590)·鄭經世(1563~1633)·李俊(1560~1635) 세 사람을 상주의 대표적 명사로 꼽았다.<sup>1)</sup> 일견 知言처럼 보이는 이런 유형의 논평은 여러 저술에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다. 물론 위 세 사람은 상주가 배출한 16~17세기 조선의 명사임은 분명했고, 더구나 한 서원에 나란히 제향까지 되었으니 이 통설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

이 논고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화합보다는 긴장에 주목한다. 그것은 노수신이라는 준재에게서 기인하는 두 고향 후배, 즉 정경세와 이준 사이의 긴장이다. 긴장에 주목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시대 사람들의 사유와 논인의 관점 그리고 현실적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경세와 이준은 ‘同鄉·同師·同科·同朝’의 ‘四同’의 연이 있었고, 서로를 異姓兄弟로 인식하며 살갑게 대했으며, 남은 이는 먼저 간 이를 위해 상례를 챙기며 누구보다 애절하게 곡했던 그런 사이였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蘇齋認識’은 매우 달랐고, 그것은 평생을 두고 해소하지 못했던 난제가 되었다.

이들의 인식 차이는 단순한 好惡의 영역을 현저히 뛰어 넘는다. 이준의 ‘소재인식’은 ‘허물 있는 가운데 허물없음을 구한다’고 하는 人情論의 측면이 강했다면, 정경세는 노수신을 영남학파의 향래적 방향성과 연동시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즉, ‘퇴계학’이라는 학문권력의 구도 속에서 노수신의 위치를 결정지으려 했는데, 이는 자신의 학파적 위상과도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그 해명을 위해 크게 네 개의 장을 구성했다. 2장에서는 정경세·이준의 ‘개성’을 학맥·훈맥 그리고 사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3장에서는 두 사람의 ‘소재인식’을 ‘비판적 흡수론’과 ‘계승적 변호론’으로 대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는 두

1) 李宜顯, 『陶谷集』 卷28, <陶谷叢說>.

인식간 긴장, 갈등 그리고 봉합의 과정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소재변호론’의 한계를 이준의 필설을 통해 가늠해보기로 한다.

## II. 정경세와 이준 : 相似와 相反의 펠로십

### 1. 門路 : 다양성의 표명과 隱諱

17세기의 정치·사상사, 특히 영남사람이라는 영역에서 鄭經世(1563~1633)와 李垞(1560~1635)은 동일시되는 면이 있었다. 상주를 매개로 한 지연, 西厓門人이라는 학연에 더해 17세기 초반 嶺南南人을 대표했던 정치적 행보가 양자를 동일한 범주에 묶어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실제 두 사람은 鄉友이자 宦友였고, 서애문하에서 동문수학하며 책선을 마다하지 않았던 學友였으며, 서남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서로를 지탱시켜 준 신실한 정치적 후견자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준은 정경세를 ‘異姓兄弟’로 일컬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아래 1629년 이준이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에는 양자의 관계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형과 나의 사이에는 비록 賢愚의 차이는 있지만 分義의 돈독함은 형제와 같은 우애가 있습니다.<sup>2)</sup>

이것은 선언적 수사가 아니라 60년 교유 과정에서의 체험에 따른 實語였다. 이들의 성장처인 西村[李垞]과 栗里[鄭經世]는 상주목 靑里面 소속으로 지근한 거리였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학연으로 이어져 두 사람은 首善書堂에서 동학하는 연을 맺게 되었다. 수선서당은 1552년부터 1554년까지 약 3년간 상주목사로 재임했던 申潛이 건립한 18개 서당의

---

2) 李垞, 『蒼石集』 卷9, <答鄭景任(己巳)>, “兄我之間 雖賢愚不同 而若其分義之篤 實有兄弟之愛”

하나로 講長은 자신의 동방 金顥의 아들 金沖이었다.<sup>3)</sup> 후일 수선서당은 상주지역 西厓門派의 주요 강학처로 기능하였으며,<sup>4)</sup> 1619년 정경세가 류성룡의 『西厓集』을 교정한 곳도 이곳이었다.<sup>5)</sup>

한편 이준과 정경세는 1580년 상주목사로 부임한 류성룡을 사사하는 과정에서 ‘西厓門派’에 편입되었고,<sup>6)</sup> 이 관계는 후일 두 사람의 학자적 위치를 설명하는 師承의 기축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582년 이준과 정경세는 식년 사마사에서 각기 생원과 진사에 입격함으로써 지연·학연에 동방의 연을 더하게 된다.<sup>7)</sup>

이런 맥락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성형제’로 인식했고, 그런 情誼는 필생토록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633년 6월 정경세가 사망하였을 때 지우들과 회동하여<sup>8)</sup> 상례를 의논하는 한편 우복문인들에게 治喪 禮法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엄수할 것을 강조했던 것<sup>9)</sup> 또한 ‘형제의식’의 표현으

- 3) 강정화, 「后溪 金範의 學問性向과 土意識」, 『南冥學研究』 10,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0, 245쪽.
- 4) 李垞, 『蒼石續集』 卷5, <修善書堂記>.
- 5) 鄭經世, 『愚伏別集』 卷5, 「年譜」(二) <己未>(1619), “五月 會修善書齋 校正西厓文集”
- 6) 李垞, 『蒼石年譜』(乾), 「年譜」<庚辰>(1580), “謁西厓柳先生請教 時柳先生牧尙州 先生往拜之 柳先生一見長歎 期以遠大之器 從而難疑問答 多得人所難得” ;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4, 「年譜」<庚辰萬曆八年>(1580), “先生年十八歲 [補]謁西厓柳先生 受爲學之序 墓誌云 西厓柳文忠公知州事 勸課多士 公賓賓然執禮請益 自是涵而飫之 月有所益云”
- 7) 1582년 식년사마시 입격자들의 同榜 의식은 1630년에 개최된 방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방회는 1630년 3월 4일 三陟府使에 임명된 李垞의 餞別을 위한 자리였으며, 제안 및 주관자는 李培迪·鄭經世·尹昉이었다. 1630년 4월 중훈부에서 개최된 방회에는 尹昉(領敦寧府事), 吳允謙(領議政), 李貴(兵曹判書, 靖社功臣), 金尙容(禮曹判書), 李弘胄(京畿監司), 鄭經世(吏曹判書), 尹昕(副護軍), 柳舜翼(漢城左尹, 靖社功臣), 李垞(三陟府使), 尹琬(僉中樞), 金斗南(司正), 李培迪(經歷)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壬午司馬榜會圖’는 방회 장면을 담은 기록화이며, 서문은 정경세가 찬술했다(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 <壬午司馬榜會圖序>). 정경세는 1586년 알성문과, 이준은 1591년 별시문과에 합격함으로써 관직 진출의 시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8) 정경세 初喪에 가장 먼저 조문한 사람은 李垞·李垞·全湜·柳軫·鄭榮邦 등이었고, 치상의 예법 또한 이들에 의해 論定되었다(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8, <言行錄>).

로 해석할 수 있다. 1635년 6월 이준은 생애 마지막 저작을 남기는데, 정경세의 대상에 즈음하여 지은 제문[挽愚伏]이 그것이다. 1635년은 정경세의 大祥이 있는 해였고, 날짜는 6월 28일이었다. 그런데 이준은 이 해 6월 17일에 사망함으로써 參祭하지 못하게 된다. 즉, 이준은 병석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곧 다가올 정경세의 대상 제문을 미리 찬술 해두었던 것이다. 죽음에 임박한 때문이었을까. 망자[鄭經世]를 향한 이준의 表情은 애통하면서도 담박·질신했다. 여기서 그는 아교와 칠로 상징되는 끈끈한 우정, 同遊·同學했던 소년시절의 기억, 충고를 서슴지 않았던 責善에 대한 감사, 道義를 心許했던 동지의식을 곡진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이성형제’로서의 분의를 거듭 강조했다.

‘우복을 치제하는 글\_대상’

嗚呼	아! 내 맘 슬프구나
膠漆之情	아교와 칠 같은 우정을 맺은 건
羈卍之歲	머리카락 동여매던 소년 시절이었지
同遊鄉塾	고을의 서당에서 함께 놀면서
異姓兄弟	분위는 성이 다른 형제였었네
兄之懿德	형과 같은 아름다운 덕을 지닌 이는
今世蓋寡	지금 세상에선 찾아보기 드물고
凡其忠告	내게 해 주었던 그 충고의 말들
實我所藉	내가 기댈 수 있던 격언이었지
交誼之淡	교계의 정의 담박하기는
如彼古井	오래 묵은 옛 우물과 같았었네
相恃者心	서로가 믿는 것은 마음이었고
所尙者正 <sup>10)</sup>	서로가 숭상한 건 정도였네

교계의 막역성에 있어 ‘이성형제’보다 더 절실한 표현은 찾기 어렵지만 情的 영역의 과탐은 객관적 사실의 투명성을 가리는 부작용을 수반

9) 李竣, 『蒼石集』 卷11, <與梅湖護喪諸君>.

10)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2, <祭文(大祥時)>(李竣). 이 제문은 이준의 『蒼石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정경세의 『愚伏集』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기도 한다. 즉, ‘이성형제론’은 정경세와 이준의 개인적 위치 및 성향을 혼효시켜 은연중에 양자를 동일시하는 부작용을 수반하였는데, 이것은 실상의 흐림이다. 지연·학연 그리고 정치적 입장 등 수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지녔고, 그것에 바탕하여 행동했다. 그런 차이점은 본고에서 다룰 ‘소재인식’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소재인식’의 상이성은 여러 차이점들의 복합적 작용이란 구도 속에서 바라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양가의 가격은 어떠했을까? 정경세 집안은 고려 말 권력이었던 상산군 金得齊의 외파로서 일정한 지역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상주 입향조 鄭義生과 아들 鄭孝翁이 부사를 지냈고, 증손 鄭克恭과 현손 鄭蕃이 각기 彰信校尉와 副尉를 지냈을 뿐 사회적 진출의 폭은 좁았다. 이에 비해 이준의 선대는 다수의 ‘文臣’ 및 ‘堂上官’을 배출하며 사환가로서의 체격을 갖추고 있었다.<sup>11)</sup> 이는 이준의 가문적 배경이 정경세에 비해 결코 취약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편 사승관계에 있어서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정경세의 학통적 노선은 鄭繼誠⇒銀成·大成·國成⇒汝寬으로 이어지는 家學과 西厓門下 입문을 통한 퇴계학의 수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sup>12)</sup> 여기에 趙穆·鄭述와의 학연으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면<sup>13)</sup> 그는 퇴계학의 4대문과[月川·西厓·鶴峯·寒岡] 가운데 3문과의 종사들과 사승관계를 맺은 셈이 된다. 이것은 그의 학문적 행보의 비중점이 퇴계학과의 주류 쪽에 맞춰져 있었음을 뜻한다.

11) 이준의 8대조 李吉은 문과를 거쳐 통례문 부사를 지내고 興陽君에 봉해졌고, 7대조 李舒原은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다. 상주 입향조인 李根은 문과에 장원하여 대사헌을 지냈는데, 문장이 閎麗深醇하여 일시의 詞命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5대조 李暉은 전주부윤, 고조 李壽川은 사헌부 집의, 증조 李兆年은 의장고판관, 조부 李琢은 종사랑이었고, 부친 李守仁만 官爵이 없었다.

12) 정경세는 柳成龍 외에 趙穆·鄭述와도 사승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학통의 기축을 이루는 것은 ‘家學’과 ‘西厓學’이다.

13) 「月川門人錄」(光山金氏 後彫堂所藏本)에는 金澤龍·曹友仁[西厓門人]·金垓·任屹·裴龍吉[西厓門人]·柳宗价[西厓門人]·李光胤·金光繼·金中淸·琴愷·琴瓘·琴愷·琴恪·金確·鄭經世[西厓門人]·李俊[西厓門人]·權春蘭·朴雲·南興達 등 총 19인이 수록되어 있다.

정경세에 비해 이준의 사승은 본향 상주지역의 ‘학문공동체’에 대한 귀속성이 강하다. 그가 접한 최초의 外傳는 金覺이었다. 김각은 金沖의 사위·문인으로 首善書堂의 운영권을 승계 받은 인물이었고, 이준은 9세 때인 1568년 서당의 생도가 되었다. 이준은 김각에게 수학하는 과정에서 師門의 신뢰를 독점했고, 1574년에는 김각의 石川臺 유람에 동참하는<sup>14)</sup> 등 ‘石川門下’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1569년, 石川(金覺) 문하에 있었다. 이때 從學하는 이가 많았는데, 하루는 석천이 각자의 뜻을 말하게 했다. 혹은 등과를 바랐고, 혹은 부귀를 취하기를 바랐는데, 선생은 맨 마지막에 ‘다른 바람은 없고, 효제충신을 배우기를 바랄 뿐입니다’고 하니 석천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sup>15)</sup>

이후 이준은 1570년 鄭國成의 문하를 거쳐 1571년에는 친명에 따라 閔閔[閔汝譜]의<sup>16)</sup> 문하에 나아가 수학했다. 정국성은 정경세의 종조부이고, 민은은 후진 양성에 뜻을 둔 16세기 상주지역 有識者의 한 사람이었다. 김각·정국성·민은 문하에서의 수학은 학자로서의 근기를 배양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은 1580년 서애문하에서 한 차원 높은 학업 공정을 수행하는 바탕이 되었다.<sup>17)</sup>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서애문인으로서의 학통적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학자관료적 성장의 추동력이 되었지만 訓蒙期의 학연에 대한 숨김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은을 드러내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직접 찬술한 金覺·鄭國成·閔閔의 묘도문자는 그 징표가 된다.<sup>18)</sup>

14) 金覺, 『石川集』 卷1, <題石川臺> 및 <附次韻并序>.

15) 李俊, 『蒼石年譜』(乾), 「年譜」 <己巳(1569)>.

16) 연보에는 ‘閔閔’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준이 지은 묘표에는 ‘閔汝譜’로 기재되어 있다. 이준과의 관계, 字號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17) 류성룡과 이준의 사제관계는 일시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류성룡이 목사에서 물러난 1584년 河回로 가서 周易을 읽으면서 사문의 칭송을 들었고, 1587년에는 역시 하회로 가서 류성룡을 배알하는 등 사제관계를 지속하게 된다(李俊, 『蒼石年譜』(乾) 「年譜」 <甲申(1584)>, <丁亥(1587)>).

18) 李俊, 『蒼石集』 卷16, <奉正大夫守軍資監正金公墓碣銘>; 卷16, <成均生員閔公墓

정경세·이준의 사승을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할 때 ‘서애문인’이라는 중심 요소는 동일하지만 주변적 성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자신을 생장시킨 ‘상주’라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의 정도, 약자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포용 여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경세보다는 이준의 언행과 자세가 훨씬 보다 ‘親鄉的’이면서도 포용력을 지닌다.

## 2. 婚脈 : 퇴계학의 중심과 주변

정경세는 21세 때인 1583년에 전의이씨 部長을 지낸 李解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이듬해인 1584년 부인과 사별하고, 25세 때인 1587년 眞城 李氏를 재취로 맞았다. 진성이씨는 병절교위 李潔의 딸인데, 이황의 숙부 李堉의 증손녀였다. 이우의 개인적 성취, 이황의 초년기 학업에 미친 숙부로서의 영향을 고려할 때 松齋家와의 혼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議婚의 실상은 알 수 없지만 혼인 한 해 전인 1586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입문했던 정경세의 사회적 지위가 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짐작된다. 또 정경세가 굳이 예안의 진성이씨가에서 아내를 맞은 것은 이황 및 퇴계학과와의 친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준 또한 1597년 초취 선산문씨와 사별하고, 이듬해인 1598년 능성구씨 具鳳齡의 손녀를 재취로 맞았다.<sup>19)</sup> 구봉령은 20세 때인 1545년 퇴계문하에 입문했고, 문과를 거쳐 대사성·대사헌 등 요직을 지닌 학자형 관료였다. 특히 그는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首院 廬江書院 [虎溪書院] 건립의 주역으로서<sup>20)</sup> 원내의 廟堂齋 등의 명호를 제정했을

表> ; 續集 卷8, <復齋鄭公墓碣銘>.

19) 이준이 능성구씨를 재취로 맞은 1598년은 구봉령이 사망한지 12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문과에 합격하여 사환을 시작한 것도 1591년이므로 구봉령과 이준이 상면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20) 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 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만큼<sup>21)</sup> 퇴계학과 내에서 위상이 높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당론적 혐의, 즉 親西人的 성향이 빌미가 되어 사론으로부터 외면 또는 배척됨으로써 퇴계학과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다. 1620년 김성일·류성룡의 여강서원 합향론이 대두되었을 때 정전 등 그의 문인들이 ‘栢潭合享論’을 거론하다 중도에 철회한 것<sup>22)</sup> 이런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봉령을 향한 친서인적 시각은 李珣와의 친교에서 기인하였고, 여기에 류성룡과의 정치사회적 상반성이 더해지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던 것 같다. 특히 류성룡의 ‘栢潭碑銘’ 찬술 요청 거절은 혐의의 농도를 한층 깊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sup>23)</sup>

이준은 어려서부터 구봉령을 ‘당대제일류’로 인식했고, 백담가의 女壻가 된 것을 매우 명예롭게 여겼다.<sup>24)</sup> 특히 구봉령이 착용했던 曼瑚纓傳受는<sup>25)</sup> ‘백담계승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sup>26)</sup> 이런 맥락에서 그는 『栢潭集』의 편찬<sup>27)</sup>, 원향 및 묘도문자의 찬

---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21) 『廬江志』卷4, 「書院」〈廬江書院〉, “凡號具佖潭鳳齡所定 額則洪正字思濟筆”

22) 鄭佐, 『松塢集』卷3, 〈與權守之泰一〉, “第以竊闚諸人意 向於屏·臨兩院 則似無異同而於龍山 則似未必翕然大同 此固世間一邊論議之所不可知也 遽爲發言之後 如有一種紛紜之說 則後生輕發之失 固不足道 而適足以貽累於所尊 故佐欲言而囁嚅 將發而還咋 以至於今日矣”

23) 李垞, 『蒼石集』別集 卷11, 〈書具栢潭碑銘後〉.

24) 李垞, 『蒼石集』卷16, 〈嘉善大夫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同知經筵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具公墓碣銘〉, “始余少時 聞栢潭先生清芬芬節屹然爲當代第一流 如鳳翔乎千仞 砥柱乎中流 未嘗不想望其風 未及納贊而公已沒矣 其後余聘于公之嗣長公之門 見其門人所錄言行本末”

25) 李垞, 『蒼石集』續集 卷5, 〈栢潭先生家藏曼瑚纓識〉, “吾於今年春 得栢潭先生所傳於吾翁者 實曼瑚之絕品 而其溫潤之色堅貞之質 與前所謂栗然哀然者無別焉 博物者視之 當何以第其品也 吾甚寶之 而又從而敬之 非物也人也”

26) 李垞은 具鳳齡을 먼대하여 訓誨를 입은 적이 없지만 ‘門下人’을 칭하는 것을 여러 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李垞, 『蒼石集』卷13, 〈栢潭先生文集序〉, “先生德行文章 有不待序而傳者 然而垞之所嘗景行賢哲則實不下於李漢之慕韓子 其掛名文集之下 以自托於門下士者固其願也” ; 別集 卷7, 〈與安東府使書〉, “鄙生亦栢潭門下人也”)

27) 李垞, 『蒼石集』卷11, 〈答龍山書院士友〉 ; 卷13, 〈栢潭先生文集序〉.

술 28)등 ‘백담현양론’을 주도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양론’이 학행의 천양을<sup>29)</sup> 넘어 구봉령을 향한 영남사론의 혐의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소재변호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준이 ‘栢潭辯護論’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된 논거로 삼은 것은 류성룡의 언급 또는 입장이었다. 영남, 특히 안동권에서 구봉령에 대한 혐의 또는 폄훼의 근인이 류성룡과의 관계에 있었던 바, 이에 대한 해명을 변호의 본령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공의 학행의 바름은 서애의 제문에서 상고할 수 있으며 … 공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厓老(柳成龍)의 說이 있다네.<sup>30)</sup>

선생은 일찍이 文行으로써 퇴계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우뚝했던 충절 또한 서애가 칭송하는 바 되었다.<sup>31)</sup>

그렇다면 ‘만제’에서 확인되는 류성룡의 ‘栢潭觀’은 어땠을까? 류성룡은 구봉령의 상에 親弔했고,<sup>32)</sup> 이 때 지은 만사에서 구봉령을 송나라

28) 李垞, 『蒼石集』 卷15, <龍山書院栢潭先生奉安祭文>; 卷16, <嘉善大夫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同知經筵成均館事五衛都總府副總管具公墓碣銘>.

29) 이준의 백담현양론은 ‘道德文章論’, ‘三代人物論’, ‘溪門得道論’, ‘純德懿行論’으로 집약된다(卷13, <栢潭先生文集序>), “先生風骨玉屹 器度凝重 羈卅之年 華聞已播 及擢大科 搢紳相賀 至有三代人物之稱 自是出入館閣 容與清華 學術文望 冠冕一時 其道則既淵源洛建 其言則實黼黻王猷 煥然剗近世之陋 蔚乎成一家之言 非所稟之厚而養之深 豈其趨舉高步之迥脫流俗乎”; 卷15, <祭具栢潭文>, “伏以退溪李先生講學于溪上游其門而得其道者蓋非一二 而以純德懿行標表於後世如先生者有幾 其清如水 其直如矢 其瑞世如鸞鷲 其鎮物如衡恒 發而爲文章則粹然義理之正 推而爲政事則毅然公明之稱 此一世之人靡不心醉而誠服 而某之所得於緬懷瞻邇之餘者”).

30) 李垞, 『蒼石集』 卷16, <嘉善大夫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同知經筵成均館事五衛都總府副總管具公墓碣銘>, “公之學行之正 有西厓祭文可考 … 欲知公心 厓老有說”

31) 李垞, 『蒼石集』 卷13, <栢潭先生文集序>, “先生早以文行而見賞於溪上 忠節之偉 又爲西厓之所稱述”

32) 柳成龍, 『西厓集』 別集 卷3, <答趙士敬>, “鄙行今番 欲出吊栢潭喪 迤邐歷拜諸丈于陶易之間 而借人驚騎 頗甚艱窘”

명신 조변과 전약수에 비견되는 忠勇한 인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sup>33)</sup> 이것은 ‘우뚝했던 충절 또한 서애가 칭송하는 바가 되었다’고 한 이준의 언급에 정합한다. 류성룡의 ‘栢潭稱道’는 제문에서도 동일한 결을 유지한다. 여기서 그는 상호 교계의 친밀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강하와 산악과 같은 潤重한 자품으로 澤物鎮俗했고, 皇猷를 아름답게 꾸민 문장과 橫流의 保障이 될 만한 역량을 지닌 위인’으로 칭송해마지 않았다.<sup>34)</sup> 바로 이 대목에서 이준이 류성룡을 구봉령의 ‘신원보증인’으로 삼은 이유가 해명이 된다.

공의 출처와 대절은 밝기가 日星과 같은데, 서애에 대해 이론을 세웠다고 말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서애께서 공이 사망했을 때 쉽사리 趙抃과 錢若水와 같이 忠勇한 인물로 인정했겠으며, 제문에서 칭도한 것 또한 결코 과찬의 말이 아닌 것이다.<sup>35)</sup>

그럼에도 이준은 류성룡이 ‘백담비명’을 찬술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표한다.

공의 述行[碑銘]을 이미 서애에게 부탁을 해놓고도 끝내 準請을 얻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남을 한이다.<sup>36)</sup>

당초 ‘백담비명’은 權春蘭이 류성룡에게 부탁하여 허락을 얻었고, 이후 鄭士誠이 재청하는 자리에서 엇박자가 생겨 끝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33) 柳成龍, 『西厓集』 卷1, <輓具栢潭鳳齡>, “浮世紛紛謾自疑 公心終始任安危 忠如清猷當朝日 勇似錢樞乞退時 三畝有桑餘舊業 百年傳緒望諸兒 從今忍過西門路 衰草寒烟不盡悲”

34) 柳成龍, 『西厓集』 卷19, <祭具栢潭文>, “公如江河之潤 推之足以澤物 如山岳之重 臨之足以鎮俗 文可以貢飾皇猷 力可以障塞橫流 … 若余無似 最深辱知”

35) 李竣, 『蒼石集』 別集 卷9, <書具栢潭碑銘後>.

36) 李竣, 『蒼石集』 別集 卷9, <書具栢潭碑銘後>.

公(栢潭)이 사망한 뒤에 權晦谷(權春蘭)이 행적을 갖추어 서애에게 비명을 부탁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 뒤 鄭子明(鄭士誠)이 서애를 뵈고 비명 친술을 거듭 청하면서 ‘백담은 공(西厓)과 논의의 차이가 없는데, 양가의 자제들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혐의하는 것입니다’고 했다. … 서애가 ‘그 집의 자제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던가?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나는 백담의 묘갈명을 지을 수가 없네’라고 했다고 한다.<sup>37)</sup>

전후 약 40년에 걸친 변호론에도 불구하고 구봉령을 향한 퇴계학과권 사람들의 폄훼적 목소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士翫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며 걱정을 숨기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퇴계학과의 암묵적 배척 대상으로 규정된 ‘他者’의 범주이다. 구봉령에 대한 폄훼론에 불만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노수신을 함께 거론했다는 것은 양인을 사실상 동일시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요사이 江左의 후배들이 선진을 헐뜯고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의 습속이 되어 서애의 정론을 버리고 망령되게 백담을 욕하고 비방함에 있어 거리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蘇老(盧守愼)를 五賢廟(道南書院)에 배향하는 것 또한 어찌 사람마다 견해가 없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그저 분분하게 비난해대는 형국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sup>38)</sup>

그것도 사실상 항의의 뜻이 내포된 이 서한의 수신자가 정경세라는 것도 곱씹어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준의 ‘소재변호론’을 상술하기에 앞서 ‘백담변호론’의 배경 및 전개 과정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7) 李竣, 『蒼石集』 別集 卷9, <書具栢潭碑銘後>.

38) 李竣, 『蒼石集』 卷9, <答鄭景任>, “近有江左後輩 姍侮先進爲習 至於舍西厓正論而妄詆栢潭無忌 蘇老之躋附五賢 亦豈無見 而然而亦未免唇舌紛紛 豈謂陝中浮薄之習 又此流入於江左也”

### 3. 師門事業：西厓推揚論의 관점과 방식

이준과 정경세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사문추양론에서도 일정하게 감지된다. 廬江書院 합향론과 『西厓集』 편간론이 그것이다. 1620년에 단행된 류성룡·김성일의 여강서원 합향은 1614년에 이루어진 趙穆의 도산서원 從享에 따른 반작용이었다.<sup>39)</sup> 즉, 퇴계학과 내부의 문파적 경쟁의식이 원향론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다. 류성룡·김성일의 여강서원 합향을 주도했던 인물은 鄭經世와 金涌이었다. 두 사람이 지니는 정치사회적 위상의 격차는 정경세가 우월적 지위에서 합향론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류성룡이 東配位로 결정되어 비교 우위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예안 사론의 주론자로서 원향론의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金鈴은 정경세가 주도했던 합향론을 이렇게 평가했다.

西厓와 鄭景任(鄭經世)은 그 恩義가 부자와 같다. 배향론이 경임에게서 결정되었으니, 3척 동자도 그것이 공론이 아님을 안다. … 대개 그 본의는 서애를 추종하여 반드시 선생의 반열에 비기려 했던 탓에 겉으로는 수호의 어려움을 구실로 삼아 이봉하는 거조를 행했으나, 실제로는 퇴계 선생에게 配食하여 서애를 退溪의嫡傳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sup>40)</sup>

김영은 류성룡과 정경세를 의리상 ‘부자관계’로 규정하고, 정경세가 이끈 합향론을 ‘學統爭奪’의 과정으로 절하하고 있다. 즉, 김영은 합향론을 ‘公’에 가탁한 ‘私’의 자행으로 규정하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여강서원 합향은 1614년에 제향을 시작했던 屏山書院 철향을 전제했고, 이에 따른 일부 서애문인들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합향 반대론은 金允思·金允安 등 풍산권 서애문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상주 출

39) 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의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40) 金鈴, 『溪巖日錄』 <庚申10月28日>(1620), “且鄭景任之於西厓 恩猶父子 配享之論 決於景任 則雖三尺小兒 皆知其爲非公論矣…蓋其本意 推重西厓 必欲追擬於先生 故外以守護之難爲名 而爲此移奉之舉 實欲配食先生 爲傳道接統之歸”

신의 이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여강서원 합향은 참으로 유림의 성사이지만 병산서원 撤廟와 연계되므로 사안이 중하고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한 고을의 논의가 찬반으로 갈리는데, 그대는 확연히 뜻을 굽히지 않고 독단코자 하는 입장이 있는 듯 합니다. … 바라건대, 마음을 비우고 사세를 세밀히 살펴 先見을 고집하지 말고 衆論 속으로 나아가 좋은 방향을 수렴하여 따른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sup>41)</sup>

물론 이준의 신중론은 채택되지 않았고, 더구나 그는 두 배위의 봉안문을 찬술함으로써<sup>42)</sup> 합향론에 조력하게 되지만 병산서원 복향을 꾸준히 주장하여 1629년에는 이를 관철시키게 된다. 원장 申之信을 비롯한 병산 원유들이 그에게 ‘復享記’를 부탁한 것은 병산서원에 대한 이준의 애착을 방증한다. 여강서원 합향론에서 드러난 정경세의 ‘적극적 찬동론’과 이준의 ‘미온적 신중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류성룡’이라는 ‘師’에 대한 계승, 즉 ‘尊師意識’에 있어서는 양인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결이 다를 뿐이다. 정경세가 서애문과의 외적 팽창과 학통적 주도권의 확보라는 대외적 측면에 집착했다면 이준은 ‘情’과 ‘禮’의 접목을 통한 내적 단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정경세와 이준을 각기 강경론자와 온건론자로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발생한다.

한편 정경세와 이준은 『西厓集』의 편찬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애집』은 3자 柳袵 및 金允安·金奉祖·金榮祖 등 서애문인들의 협조 속에 1618년 무렵 초본이 완성되었고, 이후 정경세·이준의 교정을 거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정경세의 편집 방침은 原義 훼손의 최소화를 전제로 하는 ‘刪煩取約論’과 ‘精粹論’으로 압축되며, 이런 입장은 산삭에 과감성을 보인 이준과 작은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41) 李竣, 『蒼石集』卷11, <與廬江山長>, “廬江合享 固是儒林盛學 而只緣屏山撤廟 事係重難 一邑論議 不免異同 左右確然不撓 有獨定之見 … 伏願虛心細事 無主先見 就群議之中 惟拾好是從 則幸甚幸甚”

42) 李竣, 『蒼石集』續集 卷7, <廬江書院奉安西厓先生文>, <廬江書院奉安鶴峯金先生文>.

선생의 문집을 번잡한 것을 제거하고 축약시켜 만드는 것은, 한갓 사리에 있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선생의 본의이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나 어구에 이르러는 비교적 간략하거나 마땅치 않은 곳이 조금 있더라도 일일이 산삭해서는 안 되며, 산삭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으나 마음대로 바로잡는 것은 더욱 더 온당치 않습니다. … 대개 선생의 글은 평편하고 찬찬하여 오직 말이 순하고 뜻이 통달하는 것만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읽고 있노라면 마치 서로 마주 대하여 정담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노형[李垆]의 글은 잘 정제되고 잘 다듬어져서 정밀하고 간략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바, 柳子厚(柳宗元)에게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두 분의 문장은 기상이 자연 같지 않으니, 각각 그 진체를 보존하는 것이 옳습니다.<sup>43)</sup>

이는 이준의 과도한 산삭 및 개작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교정 작업에 있어서는 정경세가 이준에 비해 ‘眞體’의 유지를 보다 강조한 입장이었다면, 이른바 ‘忌諱問字’의 수록 여부에 있어서는 이준의 태도가 훨씬 적극적이었다. 『서애집』의 기휘문자는 이색을 평가한 ‘牧隱’<sup>44)</sup>과 임진왜란 이후의 심사를 피력한 ‘丹陽行’이었다. ‘단양행’은 현실에 대한 비분을 그대로 노출시킨 작품이었던 바, 류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애문인들은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이준은 후세의 경계를 위해 이를 수록하는 강단을 보였다. 나아가 그는 ‘主和誤國’을 빌미로 조목으로부터 비난을 받던 류성룡이 류운룡에게 보낸 서한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로 수록하였는데, 이 또한 정경세 등 서애문학의 중론과는 배치되는 행위였다. 결국 『서애집』의 편찬에 드러난 이준의 방침은 ‘실상의 드러냄’이었고, 이것은 外裝을 중시했던 정경세의 편집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3) 鄭經世, 『愚伏集』 卷10, <與李叔平>.

44) 柳成龍, 『西厓集』 卷15, <牧隱>, “人情那似物無情 觸境年來漸不平 偶向東籬羞滿面 眞黃花對僞淵明 此牧隱作 此老心事 盡在此矣 悲夫”

### Ⅲ. 정경세와 이준의 소재인식

#### 1. 정경세의 소재인식 : 비판적 흡수론

노수신과 정경세는 동향의 선후배 사이였고, 자신의 스승 류성룡 또한 노수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기록이 대변하는 양인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다. 두 사람의 교유 또는 면대의 실상에 대해 짐작하기는 『소재집』과 『우복집』의 차이가 없다. 동향 출신으로 학자·관료라는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고, 약 4년의 동조 기간이 있었음에도 교유의 편린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다. 그나마 1589년 10월 1일에는 정여립 사건과 관련하여 재상(領中樞 盧守愼)과 실무관료(典經 鄭經世) 자격으로 합좌하는 장면이 포착되는가 했지만 노수신이 신병으로 불참함으로써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이것이 문집 및 실록에서 확인되는 관계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정경세가 노수신의 장증손 盧碩命을 만사위로 맞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원시에 입격한지 2년 쯤 되던 1621년 30세로 사망한 장녀서에 대한 정경세의 심사는 애절했고, 이 때 지은 만시에는 단편적이지만 긴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선 그는 노석명의 학통을 소재가학과 沈喜壽의 一松門下 수학과 연결시켜 표현한다.

未斬蘇翁澤    소재가 남긴 은택 끊어지지 않았고  
親遊沈老門<sup>45)</sup>    심로의 문하에서 친자하였네

‘沈老’는 노수신의 이질로 아우 노극신의 사위가 된 심희수를 지칭한다. 더욱이 그는 노수신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노석명은 노수신⇨심희수로 이어지는 ‘소재학통’을 이었고, 정경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경세는 노석명과 의 인연을 이렇게 묘사한다.

45) 鄭經世, 『愚伏集』 卷2, <挽盧甥碩命>.

始見完山館 전주의 객관에서 처음 보았고  
相依伏麓村<sup>46)</sup> 북록촌에서 서로를 의지했네

즉, 정경세는 전라감사에 재직하던 1611년에 노석명을 擇壻했던 것 같고, ‘의지[相依]’는 노석명이 혼인 이후 한동안 처가에 의탁했음을 시사한다.<sup>47)</sup>

이처럼 정경세는 통혼할만큼 소재가와의 친연성이 컸고, 사위에 대한 私情도 깊었지만 노수신에 대한 입장은 냉철했다. 사적 친분과 공적 포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공사분별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선 그는 노수신을 ‘先生’이라 호칭하지 않는다. 정경세에게 노수신은 영의정을 지낸 관료[公]에 지나지 않았다.

5세를 지나 관찰공에 이르러서는 강직한 자세로 직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故 영의정 蘇齋 盧公이 묘갈명을 지었다.<sup>48)</sup>

학자보다는 관료로서의 노수신을 바라보고, 평가했다는 뜻이 된다. 사림의 문자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폄하였다. 여기서 다소 장황하지만, ‘先生’과 ‘公’의 인식상의 차이를 成文濬의 사례를 통해 간접 체감해보기로 한다. 송시열은 성문준의 묘갈명을 찬술하면서 윤선거의 간곡한 부탁에도 ‘공’으로 호칭했다. 이에 尹宣學는 정경세에게는 ‘先生’이란 존칭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外叔[成文濬]을 폄하한 것에 대해 항변하였는데, 이는 ‘先生’과 ‘公’이라는 사회적 명칭이 갖는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46) 鄭經世, 『愚伏集』 卷2, <挽盧甥碩命>.

47) 정경세는 盧碩命의 용모와 문재를 玉潤과 蘭薰으로 표현할만큼 애중했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단명한 것에 매우 애통해했다.(鄭經世, 『愚伏集』 卷2, <挽盧甥碩命>, “清姿憐玉潤 芳韻愛蘭薰 自是梗楠質 終非匠石園”)

48) 鄭經世, 『愚伏集』 卷20, <有明朝鮮國通政大夫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柳公墓碣銘并序>, “五世而至觀察公 以剛直善學職名 故領議政蘇齋盧公實銘其墓”

- ① 尹友(尹宣學)가 살았을 적에 그의 외삼촌 滄浪(成文濬)을 ‘선생’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네. 나와 동춘 형은 힘껏 버텼으나, 운우도 다투기를 그치지 않다가 끝에 가서는, ‘우복에게도 이렇게 부르고서 지금 창랑에게는 아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였네.<sup>49)</sup>
- ② 지금 여러분은 坡山門派가 愚伏보다 못하다고 여기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론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sup>50)</sup>

노수신에 대한 폄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재학맥에 대한 정경세의 영향력은 증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것은 정경세 개인의 학자적 위상을 넘어 조선의 사상계에서 차지하는 주자학[특히 退溪學의 독보적 권위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정경세’와 ‘소재학맥’은 함수관계를 갖는 측면이 있어 정경세의 영향력의 확대는 소재학맥의 약화[또는 소멸]로 이어졌다. 그런 정황은 소재학맥의 우복문파로의 흡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愚伏門人錄」<sup>51)</sup>에 따르면, 소재학맥으로 파악되는 인물은 10명 정도로 압축된다.

〈표1〉 蘇齋 계열의 愚伏門人

- 沈大孚 : 노수신의 증손서
- 康喬年 : 康惟善 방손
- 盧峻命 : 盧守愼 증손
- 盧景命 : 盧守愼 증손
- 李元圭 : 李 俊 아들
- 李大圭 : 李 俊 아들
- 李文圭 : 李 俊 아들

49) 宋時烈, 『宋子大全』 卷71, <答李擇之癸丑八月一日別紙>, “因又記尹友無恙時 請稱其舅滄浪 公以先生 愚與春兄持之甚力 尹友亦爭之不已 末後乃曰 於愚伏亦稱之以此而今乃斬之於滄浪 何耶”

50) 尹宣學, 『魯西遺稿』 卷8, <與宋明甫·英甫論滄浪礪銘>, “今者僉意反以坡門下於愚伏則非但大違於土論 抑恐嶺南之笑人也”

51) 「愚伏門人錄」은 『愚伏先祖別集營刊時文蹟』(藏書閣 소장, 愚伏宗宅 기탁)에 ‘愚伏鄭先生門人子孫稷案’이란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愚伏門人錄」라 표기한다.

- 李信圭 : 李 興 아들
- 李德圭 : 李 興 아들
- 李一圭 : 李 興 아들

노수신의 증손서로 노준명·경명의 매부였던 심대부는 사실상 ‘穌齋家’의 일원이었지만 정경세를 사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신뢰를 받았는데, 權愈가 찬술한 ‘鄭經世墓表’는 이런 사실을 특기하고 있다.

佳隱 沈大學은 어려서부터 공에게 종유하였는데, 공이 그릇감으로 여겨 『周禮』 한 부를 주면서 ‘자네에게는 이 세상을 떠맡을 책임이 있으니, 이 경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익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뒤에 심공은 마침내 文學과 節行으로 이름이 났다.<sup>52)</sup>

盧峻命·景命의 경우 그 백형 노석명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형제 또한 심희수의 一松門下에서 수학하다 정경세의 우복문하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준명은 정경세와 禮를 문답하는<sup>53)</sup> 등 학적 관계가 긴밀했다. 노수신의 동서 康惟善의 방손이었던 康喬年은 정경세와 학문은 물론 일상사까지 논의할 만큼 관계가 깊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경세를 ‘류성룡의 正脈을 이은 眞儒’<sup>54)</sup>로 인식하는 가운데 강렬한 경모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선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특하고 빼어났으며, 涵養한 것이 충실하고 두터웠다. 또한 세속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여 세속의 명예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거처할 적에는 엄숙하고 공손하며 겸손하였다. 선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선생의 가르침을 들으면 방만한 마음과 사특한 기운이 다시는 마음 속에 싹트지 않았다<sup>55)</sup>

소재학맥의 우복문하 이행의 近因은 17세기 이후 주자학적 패러다임

52)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9, 附錄 <墓表>(權愈撰).

53) 鄭經世, 『愚伏集』 卷12, <盧正而峻命別紙(丙寅)>.

54)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2, 附錄 <祭文>(康喬年), “儒者之眞 夙從河上”

55)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8, 「言行錄」 <資品志趣>, ‘康喬年錄’

의 강화, 정경세의 학자적 영향력 및 학통적 위상의 증대에서 구할 수 있지만 沈喜壽(1548~1622)의 ‘愚伏觀’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복성·노대하와 함께 소재문하 3고제로 꼽히는 심희수는 상신의 반열에 올라 노수신을 양측[학자/관료]으로 계승함으로써<sup>56)</sup> 소재문하의 首門에 손색이 없었고, 더욱이 그는 노수신의 姨姪이자 姪壻(盧克愼의 사위)라는 점에서 소재학맥의 상징적 존재였다.

사실 심희수는 이황의 문인록 『陶山及門諸賢錄』에 이름이 올라 있고, 사람5현의 문묘종사 논의 때 이황의 학자적 위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등 자신의 정치·학문적 행위 양식을 東人[南人] 퇴계학과적 틀 속에서 규정할 바 있다.

(沈喜壽는) ‘이황에 있어서는, 先朝 때에 존경과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지금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그 뒤에 태어난 末學으로서서는 비록 그 실행과 학문이 얼마나 깊은가를 헤아려 알 수가 없지마는, 그의 몸을 단속하고 도를 행한 법과 글을 쓰고 말을 한 뜻을 살펴본다면, 그 순수하여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온 것임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현신들의 그 도덕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공으로써도 종사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랴야 비로소 종사될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심희수의 퇴계문하 입문은 학통적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범주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소재학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희석의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아래 채제공이 찬술한 ‘一松神道碑銘’은 심희수의 소재문하 수학이 선언적 표방이 아니라 ‘躬進請學’에 바탕한 실사임을 말해 준다.

장성하여 盧氏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첨정 克愼의 딸이자 소재공의 從女였다.

56) 蔡濟恭 『樊巖集』 卷46, <大巨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贈諡文貞公一松沈公神道碑銘>, “稍長 聘夫人盧氏 僉正克愼之女蘇齋公之從女也 時 蘇齋謫海島 公涉鯨壽躬進 請學性理文 不拘拘舉業 … 公幼襲贊成公之訓 長遊蘇齋之門”

이 때 소재가 珍島에서 적거하고 있었는데, 공은 거센 파도를 건너 몸소 나아가가 性理의 글을 배우기를 청하며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았다. … 공은 어려서 贊成工(祖父 沈逢源)으로부터 가르침을 입었고 성장해서는 소재 문하에 중유했다.

3세 때 부친상을 당한 심희수를 교육하며 사회적 성장을 도운 것은 이모부 노수신이었다. 노수신은 詩敎·書敎를 통해 심희수의 학자적 성장을 권면·경계하는<sup>57)</sup> 한편 詩會 등 사교 모임에도 대동하여<sup>58)</sup> 교류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었다. 또한 노수신은 기묘사림의 현창 차원에서 1519년에 설행된 ‘薦學科榜目’을 편찬할 때 심희수의 협력을 받은 바 있는데,<sup>59)</sup> 이것은 使役이 아닌 ‘斯文事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道學文章論’에 바탕하여 노수신을 백세의 宗匠으로 평가했고,<sup>60)</sup> 1613년에는 사실상 소재문하의 수문 자격으로 노수신의 劍巖書院[溪灘書院의 改名·八峯書院의 전신] 추배를 주관했다.<sup>61)</sup> 이 때 그는 李耜·李延慶·金世弼의 봉안 제문까지 아울러 정비하였다.<sup>62)</sup> 검암서원이 이연경⇨노수신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심희수의 ‘禮式文字’ 찬술은 그의 학통적 지위의 단적인 반영이다.<sup>63)</sup>

57) 盧守愼, 『蘇齋集』 卷6, <漢江別沈洪川喜壽>, “病客侵殘暑 危樓屬孟商 山廻三角盡 水散五臺長 愁思連吹笛 歡談誤覆觴 傷心于子石 無日會高堂”; 沈喜壽, 『一松遺稿』 <伏蒙蘇齋寵示警句 竊不勝感勵于中 謹拜手和韻以上>, “黃扉新白髮 碧海舊丹誠 固已匡衰俗 將何副盛名 商山春入望 渭水夜聞聲 明發不能寐 清樽空復情”

58) 沈喜壽, 『一松集』 卷4, <次盧蘇齋先生所題白彰卿新居>, “水玉蒼崖裏 松筠碧海濤 天生仙骨爽 人愛道情深 共赴蘇齋會 多從洛社尋 詞源唐隴右 筆法晉山陰”

59) 盧守愼, 『蘇齋集』 卷7, <己卯年薦學科榜目跋>, “尋聞有安君瑠實主其事 與沈君喜壽 金君穎男 議以克合”

60) 沈喜壽, 『一松集』 卷8, <祭盧蘇齋墓詞>, “人皆謂道德文章爲百世宗匠 余獨以養育教誨爲平生父師 失指南於太洋 獨俛俛而安之”

61) 盧守愼, 『蘇齋集』 「年譜」 <癸丑>, “四十一年癸丑 忠州土子相與合祀于溪灘書院春秋享祀祝文曰 德量行誼 學問文章 窮養達施 亶亶難忘 沈一松喜壽所製”

62) 沈喜壽, 『一松集』 卷8, <忠原劍巖書院祝詞>, “議政府左參贊陰崖李先生 氣宇清明 學術醇正 聞風百世 肅然起敬 弘文館校理龍灘李先生 資高學邃 道全德成 推其所有 以迪後生 守知中樞府事十清金先生 博聞彊識 厚德高風 追慕之深 遠近攸同 議政府領議政蘇齋盧先生 德量行誼 學問文章 窮養達施 亶亶難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희수는 소재학맥에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고 있었지만 아래 ‘愚伏言行錄’의 기사는 그의 학통적 위상에 흠결로 비쳐질 장면으로 포착된다. 물론 ‘愚伏言行錄’의 해당 기사는 정경세의 손자 鄭道應의 기술인 바,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도응의 기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물론 정도응이 근거로 삼은 서한은 심희수의 시문집 『一松集』 및 『一松遺稿』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서술의 구조에서 윤색 또는 왜곡의 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선조는 一松(沈喜壽)으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았다. 일송이 일찍이 편지를 보내 ‘山林에서 오래 지내는 동안에 학문의 공력이 깊어졌다고 하니 敬慕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아침저녁 사이에 죽을 사람인 바, 비록 나이를 줄이고 선배로서의 향렬을 낮추어 몸소 臯比의 아래로 나아가 弟子로서의 예를 행하고 싶지만, 그것마저 할 수가 없으니 말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몹시 혼모하나 어찌 감히 실정 밖의 말을 하여 그대로 하여금 회롱거리로 삼게 하겠습니까.’ 하였다.<sup>64)</sup>

‘山林’은 林下의 宿德을 뜻하는 학자의 존칭이고, 경모는 ‘師’의 반열에 대한 尊語이다. 그는 정경세를 師에 준하는 학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虛辭가 아님은 ‘親執弟子之禮於臯比之下’는 표현에서 증빙이 된다. 심희수와 정경세의 연령 차이는 15세이다. 師弟 또는 학문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연령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는 15세 연하의 후배이고, 공적으로는 하급자에게 ‘제자의 예’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심희수는 정경세의 학자적 역량을 신뢰했던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학문적 주도권의 인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소재학맥에서 차지했던 위상으로 인해 심희수의 ‘우복문인표방설’은 개인 차원을 넘어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소재학맥의 학문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보다 정밀한 검토가 따라야

63) 李延慶의 또 다른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康惟善의 묘지명도 심희수가 지었다(沈喜壽, 『一松集』 卷8, <康舟川墓誌銘 并序>).

64)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8, 「言行錄」 <述師友從遊>, 『閑居雜記(鄭道應)』

하겠지만 沈大學·康喬年·盧峻命·盧碩命 등의 우복문하 출입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취해진 집단행동이었고, 그것은 소재학맥의 우복문하로의 흡수 및 통합을 예비하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 2. 이준의 소재인식 : 계승적 변호론

노수신(1515~1590)과 이준(1560~1635)은 같은 상주 출신이었지만 상호간에는 45년의 연령 차이가 있는데다 이준이 문과에 합격하기 한 해 전에 노수신이 사망함으로써 동조의 緣도 맺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노수신과 친교가 깊었던 향중의 외부 金覺·鄭國成 등을 통해 노수신의 학자적 수준을 숙지한 상태에서 등문의 기회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 기회는 노수신이 좌의정을 사직하고 환향했던 1584년 봄에 찾아왔다. 이준을 소재문하로 이끈 것은 金弘敏·弘微<sup>65)</sup> 형제였다. 이들 형제는 당시 상주지역의 사유였던 金範의 아들이다. 김범은 이론적 탐구보다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실천학풍을 표방한 處士形 학자였다.<sup>66)</sup> 1566년에는 成運·林薰·韓脩·李恒·南彥經 등과 經明行修로 천거되기도 했고, 옥과 현감에 부임할 때는 조식과 함께 사은숙배의 예를 행한 인연도 있어 南冥·花潭 계열과도 친연성이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갓 사마시에 입격한 25세의 유생이 첫 대면한 70세 노유는 학문과 풍도를 겸한 거목처럼 착상되었다. 이준은 이날 노수신의 학자적 기품, 그를 향한 자신의 심사를 ‘敬’과 ‘心醉’라는 말 속에 압축시켜 담아낸다.

만력 갑신년 봄에 나는 沙潭(金弘敏)과 省克(金弘微) 두 분을 따라 沙谷의 山廬로 가서 소재 선생을 뵈었다. 이때 선생의 나이 이미 일흔이었다. 한가로이 지내실 적에도 곳곳하게 앉아 어깨와 등이 곧고 반듯하였으며, 조심스럽기가 소반에 물을 받치듯 했다. 술을 마시며 시를 지음에 미쳐서는 그 풍류가 우아하되 범도에 벗어 나지 않았으니, ‘敬’ 한 글자가 선생께서 일생토록 수용하신 바탕이 되어 노년에 이

65) 金弘微는 柳仲郢의 사위였으므로 이준의 스승 柳成龍과는 처남매부의 척분이 있었다.

66) 姜貞和, 「后溪 金範의 學問性向과 土意識」, 『南冥學研究』10, 2000.

르러서도 잠시도 그침이 없음을 볼 수 있었다. 心醉하여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이나 탄복해마지 않았다.<sup>67)</sup>

‘心醉’는 ‘酷慕’와 상통하는 강렬한 경모의 표현이다.<sup>68)</sup> 이에 이준은 보다 긴밀한 求教 행보를 모색하였으나 노수신의 환조 및 사망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준은 소재문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아래의 기사는 이 물음의 긍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해답을 내리고 있다.

① ‘書蘇齋年譜後’

내가 찾아 보았던 해에 선생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셨고, 또 6년만에 별세하심으로써 비록 한번이라도 函丈을 찾아 뵙고 지향할 바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을지라도 선생의 緒言 및 餘論을 찾아내어 금일에 입각할 근본으로 삼는 것에는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sup>69)</sup>

② ‘兩先生書帖跋’

내가 어렸을 적에 다행스럽게 소재의 문하에 올라 한마디 가르침을 입은 바 있었다.<sup>70)</sup>

1617년의 ‘書蘇齋年譜後’에서는 師를 뜻하는 ‘函丈’ 및 緒言과 餘論을 입각의 근본으로 삼겠다는 표현으로써 사제에 준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1633년의 ‘兩先生書帖跋’에서는 ‘登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

67) 李垞, 『蒼石集』 卷12, <書蘇齋年譜後>, “萬曆甲申春 余隨沙潭省克兩公 謁蘇齋先生 於沙谷之山廬 是時先生年已七十矣 燕居危坐 肩背竦直 標標捧盤水 及其命觴賦詩 風流嫺雅 亦不出於繩尺之外 可見敬之一字爲先生一生受用之地 不以老而暫輟也 心醉而歸 歎服累日”

68) 공교롭게도 정경세는 류성룡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心醉’라는 말로 표현했다(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8, 「言行錄」 <論人物>, ‘李元圭錄’ “古人有曰 觀德心醉 此真是善觀聖賢處 見西厓 便覺心醉”

69) 李垞, 『蒼石集』 卷12, <書蘇齋年譜後>, “其年先生還朝 又六年而下世 雖欲一叩函丈 求其指歸 而不可得 則搜得緒言餘論爲今日立脚之本者 是惟可勉”

70) 李垞, 『蒼石集』 卷14, <兩先生書帖跋>, “余於稚昧之日 嘗幸而登蘇齋之門 得蒙一言之教矣”

는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노수신에 대한 연원의식이 강렬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조 연간 7세손 李敏培가 간행한 『蒼石年譜』<sup>71)</sup>에서는 노수신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준이 노수신으로부터 감화를 입고 계승의식을 받아시켰던 ‘경진년(1584년)’ 기사는 서애문하에서 주역을 講問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의도적 누락의 혐의가 짙고, 학문권력으로서의 ‘퇴계학’의 위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갑신년. 선생 25세. 河上[河回]에서 주역을 講問했다. 의리의 심오한 곳을 해석 하자 류선생께서 稱賞하였다.<sup>72)</sup>

이준은 ‘문자찬술’이라는 立言의 방식을 통해 노수신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구체화 한다. 그 기억과 기록은 ‘천양’과 ‘변호’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준과 ‘穌齋家’는 밀착성을 강화하게 된다.<sup>73)</sup>

### <표2> 이준이 찬술한 노수신 관련 문자

- ① 書穌齋年譜後(卷12) : 1617년
- ② 告由五先生祝文(卷15) : 1631년 \_도남서원 노수신 배향시
- ③ 五賢廟穌齋先生配享祭文(卷15) : 1631년 \_도남서원 노수신 배향시
- ④ 題穌齋詩後(續集 卷5) : 1632년
- ⑤ 兩先生書帖跋(卷14) : 1633년
- ⑥ 穌齋行狀(卷18) : 1634년
- ⑦ 題十靑亭詩卷後(續集 卷5)

71) 鄭宗魯가 찬술한 <蒼石李先生年譜附錄跋>에 따르면, 연보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이준의 손자 李在寬(1620~1689)이고, 간행자는 7세손 李敏培와 李學培였다(鄭宗魯, 『立齋集』 別集 卷5, <蒼石李先生年譜附錄跋>, “右先生年譜附錄四卷 而年譜則先生之孫新窩公嘗草成一本 … 乃者宗孫敏培 與其族弟學培等 克追先志 合謀鳩財而剏之 以宗魯亦嘗與聞於校讐之役 屬一言識其後”)

72) 『蒼石年譜』(乾) <甲申(1584)>, “講問周易於河上 解釋義理深奧處 柳先生稱賞”

73) 蒼石家藏本 『蒼石集』 別集 卷11에는 <告穌齋文>과 <代盧峻命時祭祝辭>가 실려 있다. 전자는 家廟 告由文이고, 후자는 時祭 祝辭인데, 둘 다 노준명을 위해 代撰한 것이다. 이처럼 이준은 禮式文字를 代撰할 만큼 소재가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표2>에서 보듯 이준이 찬술한 노수신 관련 문자는 7편에 이르고, 전술한 고유문 및 축사를 포함하면 총 9편에 달한다. ①은 노수신의 생질이자 문인으로 1616년 ‘소재연보’를 편찬한 康復誠(1550~1634)<sup>74)</sup>의 청탁에 따른 것이고, ②와 ③은 1631년 노수신을 도남서원에 숭배할 때의 예식문자이다. ④는 노수신이 류성룡에게 증정한 시[贈柳修撰成龍]에 붙인 변론 성격의 후제이고, ⑤는 노준명이 이항과 노수신의 수적을 모아 꾸민 서첩에 붙인 발문이며, ⑥은 노수신 傳記文字의 본체를 이루는 대작으로 1634년에 탈고하였다. ⑦은 十靑亭을 노래한 시축에 붙인 후제로 이준에게 글을 청한 이는 강복성이다. 특히 ④는 소재변호론의 핵심 문자이다. 후술하겠지만 노수신이 류성룡을 전송한 시 가운데 ‘욕심은 사람의 본성이니, 사람마다 없을 수 없는 것이다’는 구절이 있었다.<sup>75)</sup> 노수신이 16세기 조선의 사상계, 특히 영남학계에서 이단시되어 배척을 받은 빌미도 여기에 있었다.

이준이 노수신과 관계를 맺은 것은 1584년이고, 이로부터 1635년 사망하기까지 약 50년 동안 존현적 관점에서 경모 및 계승의식을 유지했다. 그런 의식의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1617년이며, 이후 그는 10편에 가까운 글을 찬술하며 이른바 ‘소재변호론’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소재변호론’에 있어 1617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해는 노수신의 도남서원 추향론이 대두되었고, 학문적 非醇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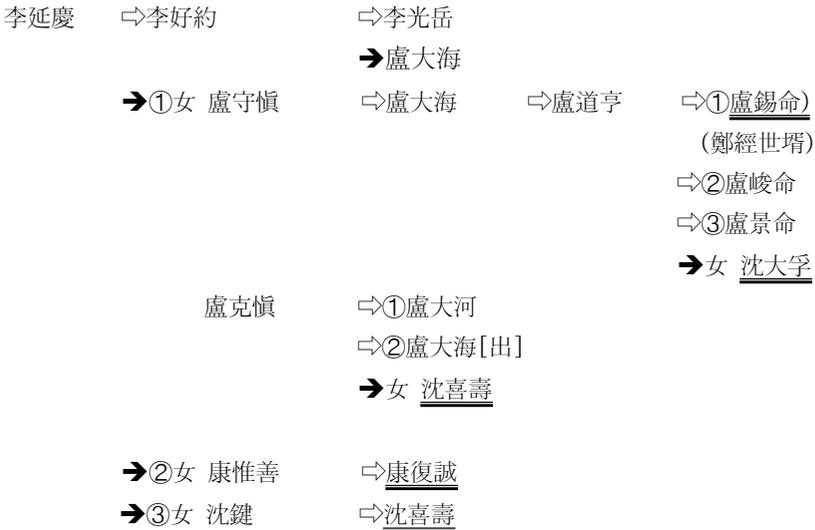
74) 李延慶의 사위 康惟善의 아들인 강복성은 ‘蘇齋年譜’ 뿐만 아니라 溪灘書院[八峯書院]의 건립을 주도하는 등 灘水蘇齋學統의 천양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李竣이 ‘書蘇齋年譜後’에서 강복성을 노수신의 ‘的傳’으로 평가하며 ‘소재연보’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명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李竣, 『蒼石集』 卷12, <書蘇齋年譜後>, “竹欄名復誠 早從先生游 得諸傳授者既의 故其言皆實錄也”). 계탄서원은 1582년 충청도 관찰사 金宇宏의 지원을 받아 李紆·李延慶의 제향처로 건립되었고, 1613년 소재문인 沈喜壽의 주관 하에 金世弼와 盧守愼을 추배하였으며, 1672년(현종13) ‘八峯書院’으로 사액되었다. 계탄서원의 건립 과정에서는 남명·퇴계문인 吳澐의 역할도 컸는데, 그는 충주목사로서 물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당의 名號 및 堂室의 편액도 직접 명명했다(김학수, 『竹牖 吳澐의 생애 : 학자·관료적 자취와 타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竹牖 吳澐』, 예문서원, 2018).

75) 盧守愼, 『蘇齋集』 卷6, <贈柳修撰成龍>, “欲者人之性 人皆不可無 何修以入道 吾老竟歸愚 病眼三年淚 離懷八月湖 幾人曾此論 今日更長吁”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가열되면서 ‘配享’이 아닌 ‘從享’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 조처는 ‘의도적 폄박’의 혐의가 짙었고, 노수신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소재변호론’과 관련된 저작들이 1617년을 기점으로 양산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이준은 노수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즉, ‘소재인식’의 요점을 1634년에 찬술한 ‘소재행장[蘇齋盧先生行狀]’을 통해 짚어보기로 한다.<sup>76)</sup>

<그림1> 李延慶 내외손도 : ⇨(直系) / →(婿系)



76) ‘蘇齋行狀’은 노수신의 증손 盧峻命·景命의 부탁을 받아 이준이 찬술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 노수신의 장증손 盧碩命은 정경세의 사위였고, 정경세는 이황·노수신·류성룡을 이어 영남남인인으로서는 드물게 대제학을 지낸 인물이다. 그림에도 ‘蘇齋行狀’이 정경세가 아닌 이준에게 청탁된 것은 노수신에 대한 양인의 엇갈리는 인식을 잘 반영한다.

먼저 이준은 노수신의 학자적 성장을 李延慶·金安國·李彦迪과의 사사 및 종유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탄수문하에서 학문하는 방향을 배웠고, 김안국으로부터는 대유의 자질을 인정받았음을 적기하고 있다.<sup>77)</sup> 특히 존심의 요체와 관련된 노수신과 이언적의 문답은<sup>78)</sup> ‘晦齋學’을 ‘蘇齋學’의 연원으로 설정해야 할 만큼<sup>79)</sup> 구체적이면서도 긴요했고, 이런 맥락에서 노수신은 이언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소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회재는 存心 공부가 많고, 퇴계는 講學 공부가 많았다.’고 했다.<sup>80)</sup>

孟子가 ‘학문을 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풀어진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文元公 晦齋 선생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이른바 학문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침내 느낀 바를 써서 돌려보내어 三韓의 心學에 오직 선생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바이다.<sup>81)</sup>

77) 李垞, 『蒼石集』 卷18, <蘇齋行狀>, “十七 登灘叟李先生之門 得聞爲學之方 日誦小學 以爲受用之地 甲午 中司馬兩試 入大學 鷄鳴必冠帶而坐 夜分乃寢 莊敬自持 慄慄捧盤 水 雖同舍生 未有見其髻者 時慕齋金先生知館事 以時習箴試諸生 見所製凡下 以人才不競爲憂 及見先生作 大奇之曰 此人終當爲世大儒”

78) 李垞, 『蒼石集』 卷18, <蘇齋盧先生行狀>, “辛丑 聞晦齋李先生入洛 以書爲贄而禮焉 仍請存心之要 晦齋指其掌而視之曰 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先生曰 是忘助之異名也 一言妙契 尤用力於收斂之方”

79) 필자는 「16~17세기 사림계의 ‘晦齋認識’ (위덕대 양동문화연구원, 『인류의 평화공존과 번영-주자와 회재에게 길을 묻다』, 2018년 한중 성리학 국제학술회의, 2018. 8.31.)이라는 발제문에서 盧守愼[灘叟系]·許曄[花潭系]·李濟臣[南冥系]·尹根壽[花潭系] 등의 사례를 들어 탄수·화담·남명계를 회재학의 外皮로 거론한 바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언적과 노수신의 사제관계는 1541년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이 학연은 이언경과 이언적의 교유관계의 확장적 양상이었다. 노수신은 이언적에게 ‘存心之要’를 질문하는 등 본원공부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는데, 후일 노수신이 ‘晦齋集序’, ‘年譜後序’ 등 이언적 관련 문자를 찬술하고 玉山書院 廟·堂·齋·門[體仁廟/求仁堂/兩進齋/偕立齋/無邊樓/亦樂門]의 名號까지 손수 제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80) 尹根壽, 『月汀漫筆』

81) 盧守愼, 『蘇齋集』 卷7, <晦齋先生集序>.

한편 이준은 이연경과 이연적을 노수신의 ‘師’로 인식하면서도 이황은 그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1544년 湖堂에 함께 선발되어<sup>82)</sup> 道義를 강론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sup>83)</sup> 사실상 등위의식을 투사하고 있다.

이준은 노수신의 행적을 기술함에 있어 학자·관료적 측면의 안배에 부심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관료적 면모를 서술하면서도 경연에서 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성학을 보필하는 신진관료 노수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20년 적거 생활은 학문을 확충하고 덕업을 배양하여 학자·관료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늘의 고려로 표현하고 있다.<sup>84)</sup> 이것은 노수신의 학문과 경륜을 시련의 結晶으로 평가함으로써 ‘口耳之學’과는 철저히 구별하는 입론 방식으로 읽힌다.

나아가 이준은 ‘居敬窮理’와 ‘成己成物’을 노수신 학문의 본지로 규정하고 일상에서의 효우 그리고 移孝爲忠의 행위를 ‘學’의 징험으로 제시하여 소재학이 갖는 學과 行의 일체 또는 유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에 따르면, 노수신은 대체를 유지하고 元氣 부식을 선무로 여긴 경세가였다. 하찮은 재주로 허명을 탐하지 않았고, 준법과 경장의 조화를 통해 국가적 환난에 대비하였는데, 이를 禮教·儒教에 바탕한 국가운영론의 표명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서 鄉約의 시행, 인재의 엄선, 師儒의 설치, 臧汚法の 강화, 師生 분의의 엄격한 구별 등의 건의를 들고 있다.

행장의 말미에서 이준은 자신의 본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준이 설정하고자 했던 ‘穌齋像’은 ‘學者宰相’이다.

---

82) 대제학 金安國·蘇世讓·成世昌의 주관했던 1544년(중종39)의 湖堂 선발에서는 李滉·洪暹·鄭惟吉·柳希春·金麟厚·盧守愼·朴忠元·趙士秀·任說·金祺·丁應斗·宋麒壽·吳祥·李承孝·林亨秀·南應龍·尹仁恕·尹鉉·李洪男·李湛·閔箕·金海·閔起文·尹希聖·李元祿 등 총26명이 뽑혔다. 이황·노수신을 비롯하여 김인후·정유길·유희춘의 추천자는 成世昌이었다(朴承任, 『嘯臯集』附錄, 「年譜」 <湖堂同選案>).

83) 李垓, 『蒼石集』卷18, <穌齋盧先生行狀>, “仍賜暇東湖讀書 與退溪李先生伴直 多有講論道義之樂”

84) 李垓, 『蒼石集』卷18, <穌齋盧先生行狀>, “先生謫居海島二十年 苦其心志 深其涵蓄 閑居獨處 專力於學 晚來德業之大 皆自此做出來 豈非天之所以窮其身而老其才者 將以極其用於後日也”

어진 인제는 대대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또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조 이래 유자를 등용하여 재상으로 임명한 예가 많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독 선생만이 바른 학문[正學]과 아름다운 절개[婣節]로써 우리 선조 임금 을 보필하여 제우의 극진함은 견줄 데가 없이 세상에 드문 일이었다.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시의 인재를 수용하여 함께 국가를 경영코자 했던 것이 그 뜻이었다. 그러나 만년에 사론이 문란해져 부화뇌동하여 험뜯는 일이 그치지 않아 마침내 계획한 바를 완수하지 못한 채 낭패를 당해 물러났으니, 저처럼 사람을 알기 어려움에 군자들이 모두 자신의 병통처럼 여겼다.<sup>85)</sup>

이준은 ‘유자재상[用儒作相]’의 모범적인 사례로 노수신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즉 ‘바른 학문[正學]’과 ‘아름다운 덕[婣節]’을 갖추었고, 그것에 바탕한 經世의 뜻을 펼치고자 했던 인물이 곧 노수신이었던 것이다. 비록 鄭汝立 모반사건으로 인해 노수신의 말년은 크게 훼손되었고, 이준 또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수신을 ‘학자재상’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아래의 인용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자의 배출도 적었거니와 유자로써 相業을 겸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고려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오직 圃隱[鄭夢周]과 우리 선생[柳成龍]이 있을 뿐입니다.<sup>86)</sup>

사림의 사회적 기능 또는 역할을 ‘學’과 ‘行’으로 구분할 때, 이준은 학자적 굴기와 관료적 성취를 겸한 ‘학자재상’을 바람직한 사림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식에 대입 가능한 인물로 정몽주와 류성룡을 꼽고 있지만 ‘소재행장’의 기술 논조를 고려한다면 이준이 설정했던 ‘학자재상’의 통서는 鄭夢周⇨盧守愼⇨柳成龍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와 관

85) 李垞, 『蒼石集』 卷18, <蘇齋盧先生行狀>, “賢才不世出而相業不常有 國朝之用儒作相不爲不多 而獨先生以正學婣節 相我宣考 其遭遇之隆 曠世無比”

86) 李垞, 『蒼石集』 卷9, <答鄭景任(辛酉)>, “我東儒者之出不數 況以儒者而兼相業則尤不易得 自麗迄今數百年之間 惟圃隱與我先生而已”

련하여 노수신의 학문적 비순성의 빌미가 한강에서 류성룡을 전송할 때 증정한 ‘시[贈柳修撰成龍]’라는 사실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 추론컨대, 이준은 노수신과 류성룡 사이의 학문적 상통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관료적 역할 및 비중까지 더하여 양자를 ‘師弟’에 준하는 관계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며, 이것은 노수신→류성룡→이준으로 이어지는 학통 설정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 IV. 노수신의 도남서원 제향의 양면성 : 의도적 폄박과 석연찮은 수용

1606년에 건립된 道南書院은 상주지역 최초의 서원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상주를 안동·예안에 버금가는 영남학과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경세가 도남서원 건립을 발의한 것은 1605년 4월이었다. 당시 그는 存愛院의 운영 주체들과 건원을 議定하고 통문을 발송하여 鄉論을 수렴함은<sup>87)</sup> 물론 상주목사[金尙容] 및 경상감사[柳永詢]에게 정문하여 건원의 취지를 설명하고<sup>88)</sup>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건원사업을 주도했다.<sup>89)</sup> 특히, 감사 유영순에게 올린 글에서는 건원의 취지를 辟異端의 관점에서 설파하여 호응을 이끌어냈다.<sup>90)</sup>

87) 鄭經世, 『愚伏集』 卷14, <道南建院通文(乙巳)>.

88) 鄭經世, 『愚伏集』 卷8, <呈金牧使尙容文乙巳爲本州儒生作>; <呈柳方伯永詢文爲本州儒生作>.

89) 「道院故事」에 따르면, 당초 건립논의는 宋亮·鄭經世·趙靖·李鼎·李竣 등 8인을 중심으로 발론되었으나 玉成書堂 會合 때에는 회원이 60명으로 늘어났고, 1606년 10월에는 125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道南書院創設稷案」은 도남 건원에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인데, 거의 대부분이 西厓·愚伏門人이다. 이는 도남서원의 건립이 서애·우복학맥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을 말해 준다.

90) 鄭經世, 『愚伏集』 卷8, <呈柳方伯永詢文爲本州儒生作>.

한편 정경세는 원우의 제도 및 위치, 院號 등 중요 사항은 류성룡에게 품의하여 결정했다. 류성룡은 易東書院 규례의 준용을 강조하는 한편 원호 역시 ‘道南’과 ‘洛淵’ 가운데 ‘易東’과 그 뜻이 상통하는 전자를 택정하였다.<sup>91)</sup> 결국 도남서원은 두 사제의 조율 속에 출범의 기틀이 갖추어졌고,<sup>92)</sup> 역동서원 규례의 준용은 퇴계계승의식의 표명이었다. 정경세가 ‘도남서원묘우상량문[道南書院廟上樑文]’에서 5현 중에서도 이황을 특정한 것은 원향론의 실질적 主眼處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한다.<sup>93)</sup> 특히 그는 상량문 말미에서 ‘千秋의 道脈이 이 서원에 있으리라’고 한 대목에는 도남서원의 향래적 비중에 대한 강한 여망이 투영되어 있었고, 실제 도남서원은 5현의 도학적 지위로 인해 건원 단계부터 陶山·廬江·玉山書院 등과 함께 영남의 首院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1617년 노수신의 추향론에 직면하게 된다.

## 1. 1617년 도남서원 從享論 : 사상적 혐의와 의도적 폄박

1616년에 발론되어 1617년에 매듭을 지은 노수신의 중향은 도남서원 건립 이후 최초의 추향이였다. 당시만 해도 원향은 도학적 지위를 공인화하는 의미가 컸고, 특히 도남서원은 5현의 제향처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배가될 수 있었다. 노수신의 입향론이 서원 출범 이후 10년이 경과한 뒤에 발론된 것은 안동·예안권 퇴계학파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1608년 안동 출신의 퇴계존숭론자 裴龍吉은<sup>94)</sup>

91) 鄭經世, 『愚伏集』 卷9, <上西厓先生稟目> 및 <附西厓答>.

92) 道南書院 初代 院長은 趙靖이었으나(趙靖, 『黔澗集』 卷4, 「年譜」 <三十四年丙午>) 중요한 결정 사항은 鄭經世가 柳成龍에게 稟議하여 처리하였다.

93) 鄭經世, 『愚伏集』 卷16, <道南書院廟上樑文(丙午)>.

94) 정경세·이준과는 서애·월천문하의 동문이기도 했던 배용길은 당초 류성룡이 찬술한 아버지 배삼익의 墓銘을 폐기하고, 李山海에게 재청하는 등 서애계열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尹宣學, 『魯西遺稿』 卷14, <石室語錄>, “先生曰 裴三益是柳西厓之同接友也 裴之葬也 西厓爲銘其墓 裴之子龍吉 不用柳文 更請于李山海 人皆笑之”), 趙穆에게 배척된 것을 원망하여 조문을 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조목의

류진이 노수신의 ‘性惡論’을 두둔한다고 혐의하여 상주 사림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지역 간 긴장감을 조성기도<sup>95)</sup>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회수의 친퇴계적 성향의 강화, 노수신의 증손이자 일송문인인 盧峻命·盧景命의 우복문하 출입은 소재학맥이 퇴계학과를 대상으로 일말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1616년의 노수신 추향론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고, 소재문인 강복성의 상주목사 부임 또한 호기로 작용하였지만 그 진행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추향론의 발론자는 시임 상주목사 康復誠이었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한 인물이 이준과 全滉이었다. 그리고 당초 강복성이 의도했던 것은 ‘중향’이 아닌 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과 동일한 등위인 ‘配享’이었다. 그러나 강복성·이준·전식 등의 기대와는 달리 추향론은 발론 초기부터 반대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게 된다.<sup>96)</sup> 안동·예안 사림이 중심이 된 반대론은 상주 사론에까지 여파를 미쳐 원장 趙光璧이 사퇴하는 곡절이 따랐다. 이에 이준은 조광벽을 설득하며 원향론을 밀어붙이게 되는데, 이 때 그가 설득의 논리로 내세운 것이 ‘稀世名賢論’이다.

(蘇齋는) 뛰어난 資質에 學力까지 더했고, 그 문장과 절행은 실로 세상에 드문 명현입니다.<sup>97)</sup>

---

陶山書院 중향을 반대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1609년에는 아들 裴淑全과 함께 도산서원 院錄에서 삭적당하기도 했다(金垿, 『溪巖日錄』 <1609년 5월 3日>, “安東士人會議 裴都事父子削名院錄 門徒禹南人二損 此事紛撓 終不鎮定 豈好底事哉”). 또한 그는 문인을 규합하여 강화하던 정경세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鄭經世, 『愚伏集』 卷9, <答表明瑞龍吉丙午>(1606); 『愚伏集』 卷9, <答表明瑞龍吉>) 영남의 사림사회에서 자주 物議를 빚었다.

95) 柳軫, 『修巖集』 卷1, <答鄭愚伏>(丙辰), “下教盧蘇齋性惡之論 軫所未嘗言 不知此說何從而出乎 向在戊申年間 得見表明瑞丈寄此府土友書 有右性惡等語 軫等其時實不知首末

96) 李垿, 『蒼石集』 卷9, <答鄭景任>, “近有江左後輩 姍侮先進爲習 至於舍西匡正論而妄詆栢潭無忌 蘇老之躋附五賢 亦豈無見 然而亦未免唇舌紛紛 豈謂陝中浮薄之習 又此流入於江左也 天下有正理 惟博學明辨 然後不先主偏見而是非可察 此非目不辨驪黃者所可忘論也 窃有傷於近日之弊”

97) 李垿, 『蒼石集』 卷11, <答道南山長>, “奉安日迫 何可以此而有固必於引避也 蘇老之

추향론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경세의 입장이다.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이준의 언급에 따르면 추향 자체에는 찬동하고 있었다.<sup>98)</sup> 하지만 그는 제향의 등위, 즉 배향에 대해서는 ‘階級論’에 입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제시한다.

저의 앞은 소견으로 말해 본다면, 蘇翁(盧守愼)이 비록 퇴계에 대해서 제자의 예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후학이 존양함에 있어 계급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자는 西山(陳德秀)을 항상 노우로 대우하였는데, 『朱子實紀』, 『性理群書』에는 모두 제자의 열에 기록하였으니, 아마도 이 예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99)</sup>

朱子와 陳德秀의 관계를 차용하여 계급론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것은 이황과 노수신이 同格의 儒賢이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의 표명이었다. 추향은 수용하되, 배향은 거부했다는 점에서 정경세의 입장은 ‘半容反拒’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의도의 무게 중심은 후자에 실려 있었으며, 그것은 사실상 폄박이었다. 정경세의 계급론은 位格이 ‘配享’에서 ‘從享’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고, 趙光壁 등 원유들은 鄭述에게 이를 품의하여<sup>100)</sup> 마침내 종향으로 확정하게 된다.

二十年困於海島者 天所以老其才也 以其資質之高 而加之學問之力 其節行文章 實稀世之名賢”

98) 李俊, 『蒼石集』 卷11, <答道南山長>, “愚伏之見 確然不可易也 斯文重事 世自有主張者 姑聽其議論之定可也 同志之間 雖有識見之異 所當反覆商確 要使歸之於一可也 寧可但據自己偏見 有終始乖張者也 偶苦臂疼 胡草悚甚”

99) 鄭經世, 『愚伏集』 卷13, <答道南山長丁巳>, “且以淺見言之 蘇翁於退溪 雖不執弟子之禮 後學之尊仰 不可無階級 朱子之待西山常以老友 而實紀群書 皆書於弟子之列 恐當以此例處之如何如何”

100) 정구는 남명·퇴계 양문의 고제이지만 1600년대 초반 이후 이황과의 학연을 특별히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1602년 ‘東岡挽詞’에서 이황을 ‘正脈’으로 평한 것이라든지 1607년 안동부사 부임과 도산서원에서의 『心經』 강의 등은 퇴계경모론의 단적인 표출이었다(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6.30.).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정구가 노수신의 위격을 자문함에 있어 ‘從享’을 고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어제 汝完(趙光璧)이 보낸 별지를 보니 岡老(鄭述)의 답이 배향에 대해서는 주저하다가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허락하였다고 하니, 그 은미한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sup>101)</sup>

정경세의 제안과 정구의 자문, 즉 이황의 문인 및 再傳 문인을 통해 결정된 ‘從享’은 사실상 노수신에 대한 퇴계학파의 ‘집단인식’의 산물이었고, 추향론의 발론자 강복성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봉안례의 연기 의사를 표명하는 등 진통이 수반되었다. 이에 정경세가 설득 작업에 나서 불만을 봉합함으로써<sup>102)</sup> 1617년 3월 18일 노수신의 도남서원 봉안례가 치러지게 된다.

고유문, 봉안제문 등 봉안에 따른 예식문자는 정경세가 찬술했다. 새로운 인물의 중향 사실을 알리는 고유문에서 정경세는 노수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 고을에서 배출된 大夫 가운데 聖學에 힘을 쓴 분이 있어 吾黨의 小子들 모두 사당에 제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故 領議政 蘇齋 盧守愼의 신주를 오늘 봉안하기에 앞서 고하는 바입니다.<sup>103)</sup>

여기서 그는 노수신을 관료[大夫]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 관계에 전혀 벗어남이 없지만 존숭의 감도는 자못 떨어진다. 다만 그는 봉안문에서는 노수신의 자질과 품행에서부터 好學과 持敬의 학문적 자세와 방향, ‘夙興夜寐箴註解’·‘德辨錄’ 등 학문적 업적, 군주를 계도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미친 관료적 치적에 이르기까지 노수신의 학자·관료적 궤적을 잘 표현했다.<sup>104)</sup> 특히 후반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명하여 제향의 정당성을

101) 鄭經世, 『愚伏集』 卷13, <答道南山長丁巳>, “昨見汝完別 則岡老之答 推托於配享而快許於從祀云 其微意可知”

102) 鄭經世, 『愚伏集』 卷13, <答道南山長>, “盛禮之舉只隔一宿 而遽爲停止 則傳播之說紛紜百端 不可以戶說 而鬧端作矣 豈非不幸之甚乎 令公之意果歉於從享 而使之姑停 則決然行之果爲未安 今既無此語則何可揣探其意而停止耶”

103) 鄭經世, 『愚伏集』 卷16, <蘇齋從享時五先生前告事由文>, “是邦大夫有能用力於聖學 吾黨小子咸願賤食於明宮 故領議政蘇齋盧守愼今日妥靈 先事申告”

피력하고 있다.

道脈所在      사문의 도맥 이곳에 있으니  
公宜賸食<sup>105)</sup>    공을 여기 봉안함이 마땅하도록

제향에 대한 찬반, 배향과 종향에 따른 논란은 따랐지만 이로써 노수신은 도남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고,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과 함께 영남유학의 종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원향을 바라보는 안동·예안권의 비판적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17세기 초반 禮安 사림의 좌장격인 金垚의 매물찬 비평에서도 확인된다.

상주 도남서원에 소재 노수신을 종향했다고 한다. 말세의 사사로운 감정의 드셈이 끝내 이와 같은 말인가? 주론자는 상주목사 康復誠이고, 부회한 자는 全滉이다. 강복성은 노소제의 3촌 조카(姨姪)이고, 전식은 소재의 문인이다. 벼슬을 위세로 사사로운 은혜를 갚으려고 하여 때를 틈타 죄를 내었다. 鄭江陵(鄭經世)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논의에 따라 봉안문을 지었다.<sup>106)</sup>

김령은 노수신의 종향을 ‘벼슬을 위세로 한 사사로운 은혜의 갚음’으로 규정하며 주론자 강복성의 처사를 강하게 규탄했고, 이에 부화 또는 동조했던 정경세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김령의 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림 전반에 확산되어 있었던 인식의 일단인 바, 원향이 노수신에 대한 논란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동시에 강복성·이준·정식 등 제향을 주론했던 인물들의 입장에서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배향’에서 ‘종향’으로의 선회는 노수신의 위상 격하를 확인하는 수모의 과정으로 각인되었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문적 ‘非醇性’ 논란은 지난하지만 반드시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31년의 승배론과 이준의 각종의 변론의 글은 이런 맥락 속에서

104) 鄭經世, 『愚伏集』 卷16, <蘇齋先生從享五賢廟祭文>.

105) 鄭經世, 『愚伏集』 卷16, <蘇齋先生從享五賢廟祭文>.

106) 金垚, 『溪巖日錄』 <1617年 3月 18日>.

예비되어 갔다.

## 2. 1631년의 陞配論 : 퇴계학적 수용과 통합

종향에서 배향으로 位格을 상향 조정하는 노수신의 도남서원 승배론이 대두된 것은 1631년이였다. 이준·강응철 등은 이 해 추진된 류성룡의 도남서원 배향에 편승하여 승배논의를 접화했던 것인데, 이 또한 크고 작은 반대에 직면하여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승배에 더하여 위패의 칭호 또한 ‘公’에서 ‘先生’으로 개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sup>107)</sup> 강좌를 중심으로 반대론도 비등해졌다.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이준은 해명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는데, 류진에게 보낸 서한에는 ‘소재변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蘇老를 並配하는 것에 대해 좌도에서 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육십이란 사람의 본성이다’고 한 구절이 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재는 절행과 문장이 있고, 海島(珍島)에서 쌓은 깊은 학력은 후배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논의가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에 선생께서 평소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정론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오시는 편에 그것을 알려주시면 이곳의 의혹을 변화코자 합니다.<sup>108)</sup>

즉, 이준은 류진을 상대로 ‘西厓定論’을 요구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疑惑의 辨破’를 명시하고 있다. 격려와 우려가 혼재된 류진의 답서는 승배론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그는 류중영·성룡 부자와의 교계 및 학연을 언급하며 노수신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 다만 류진 또한 노수신을 향한 사상적 혐의를 일정 부분 인

107) 金玲, 『溪巖日錄』 <辛未 9月 10日>, “道南書院蘇齋西厓俱稱先生配享”

108) 李垞, 『蒼石集』 卷10, <答柳季華>(4書), “蘇老並配 聞有左道物議 豈非欲者人之性 一句話爲所累也 此老有節行文章 海島學力之深 尤非後輩之所歎看 而論議參差如是 未知先生平日所論如何 必有定論 望因來示之 以破此中疑惑”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혐의는 본원이 아닌 ‘찌꺼기[查滓]’에 지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만 그것의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의 선비라는 자들이 그럴만한 자질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소재 선생은 저의 王父(柳仲郢)과 나이와 뜻이 같고, 居止 또한 같았습니다. 先父(柳成龍)께서는 그런 인연으로 문하를 출입하며 항상 제자의 예를 행했던 까닭에 일생 동안 존모하며 늘 ‘蘇老’라 칭하며 한번도 관작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더러 찌꺼기가 섞여 미진한 곳이 있더라도 밝게 분별할만한 식견이 있는 이라야 능히 그 고하를 논정할 수 있을 것인데, 요사이 선비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능히 이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韓愈가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려 하니, 제 역량을 모르는 게 가소롭구나’라고 했는데, 저 또한 그저 탄식만 더할 뿐입니다.<sup>109)</sup>

즉, 류진은 강좌 비판적 시선을 ‘수준 미달의 험뜯은 수준’으로 격하하고, 또 조소함으로써 이준의 ‘소재변호론’과 승배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이준·강응철이 추진했던 승배론에 대해 정경세는 ‘不關’의 태도를 견지했지만 간혹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비록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준과도 약간의 갈등을 빚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평생을 같이한 동지로는 의당 우리들 몇몇만 한 사람이 없을 것인데, 오늘날의 큰 의논에 있어서는 사소한 점에서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바는 이치가 환하게 밝혀져 같은 결론을 내게 될 날이 반드시 머지않아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 대개 선배들이 나아간 경지의 높고 낮음과 깊고 얕음은 가벼이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南溪(康應哲) 兄의 소견은 경솔하게 말한 잘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sup>110)</sup>

109) 柳珍, 『修巖集』 卷1, <答李蒼石>(辛未), “蘇齋先生 與珍王父 同庚同志 居止又同 先父 夤緣出入 常執子弟之禮故 一生尊慕每稱蘇老 而不敢舉其官爵 設使或有些查滓未盡 渾化處 堂上之人 方能定其高下 不知今世之所謂士者 誰能辨得此邪 韓文公所謂蚍蜉撼大樹 可笑不自量者 只可一歎”

110) 鄭經世, 『愚伏別集』 卷1, <答李叔平>(辛未), “南溪兄所見 得無失之於率易耶 且其立言措意多有未瑩 令人不得解見 必須相對一番痛說 而生心神昏憤日甚 雖片言半句亦不得分明酬酢 況今衆說紛紜 愈見而愈難解 奈何 所願僉兄與南溪兄密切提撕 期於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이준·강응철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 입어 승배 논의는 가닥이 잡혔고, 1631년 9월 10일 노수신의 승향과 류성룡의 배향 의식이 함께 치러졌다. 이로써 노수신은 ‘先生’의 지위를 획득하며 5현에 준하는 유현의 반열에 들게 된다.

도남서원에서 소재와 서애를 모두 ‘先生’이라 칭하면서 배향했다. 두 공의 제문 및 正位 告文은 삼척부사 이준이 지은 것이다.<sup>111)</sup>

예식문자의 찬술 내역은 ‘소재승배론’의 주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준은 1631년 2월 삼척부사에서 해임되었고, 1632년 6월 입조하기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재향의 기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응철과 함께 승배론을 추진하여 이를 성사시켰고, 예식 문자까지 찬술하게 된 것이다.

우선 그는 노수신·류성룡의 배향 사실을 알리는 고유하는 축문에서 이언적과 노수신의 관계를 자못 강조한다. 이준은 노수신을 이언적의 학문적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었고,<sup>112)</sup> 그것의 우회적이면서도 강렬한 표명이 아래 축문인 것이다.

勿忘勿助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던 그 말씀
粵自執贊存心之間 <sup>113)</sup>	제자의 예를 갖추어 존심의 요체를 질문할 때였지

한편 이준은 ‘배향제문’에서 노수신을 ‘대현’으로 예칭하는 한편 資質·立志·心法·守心·問學·著作 등을 언급하며 배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sup>114)</sup>

判斷此大論 至善至善 士林公論 本非一人一家私事 而況有退陶先生至精至大之論 何可以己意揣度驅率 或以爲初年之見 或以爲責備之論 欲爲與奪於其間也 更願細量”

111) 金玲, 『溪巖日錄』 <1631年 9月 10日>.

112) 李滉과의 학연이 강조된 류성룡의 配享祭文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李垓, 『蒼石集』 卷15, <五賢廟西厓先生配享祭文>, “文純倡道 乃續絕絃 公於溪上 執贊髣年 函丈發嘆 才降于天 貞明在中 英邁無前 功兼博約 理契魚鳶”

113) 李垓, 『蒼石集』 卷15, <告由五先生祝文>.

114) 李垓, 『蒼石集』 卷15, <五賢廟蘇齋先生配享祭文>, “天相斯文 篤生大賢 賦質之粹

止乎從享	종향에 그침에
物議歉然	물의를 그것을 부족하게 여겼고
躋之配位	배위로 올려 제향함에
禮儀罔愆 <sup>115)</sup>	예의에 어그러짐이 없어졌네

이 글의 후반부에서 종향에서 배향으로의 승향을 사림 공론의 반영임을 언명한 것은 예식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 V. ‘소재변호론’의 殘像 : 이준의 문자적 변명과 그 한계

이로써 승배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준의 기대와는 달리 비판론은 일소되지 않았다. 아래 『溪巖日錄』의 기사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근년(1617)에 소재를 종향할 때 조광벽이 한강에게 품의하였으나 흔쾌히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고을에서는 한강의 말을 바꾸어 ‘한강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에 대해 성주의 비판적 사론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때에 이르러 康應哲이 또 鄭判書(鄭經世)의 뜻이라고 하면서 소재의 승배론을 주도하자 중론이 그것을 따랐다. 이 논의는 실제로 정판서에게서 오로지 나온 것이 아니라 강응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정공은 정신이 흐려져서 모두 이르길, ‘밝게 알지 못 한다’고 한다.<sup>116)</sup>

김령은 노수신의 승배를 ‘정경세의 권위에 가탁한 私論’으로 폄하하고, 여기에 이용된 정경세를 조소하고 있다. 김령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정경세가 노수신의 승배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

立志之專 廿載處困 一心靡遷 萬殊皆會 百氏旁穿 其才益老 其守彌堅 問學之積 徹微探玄 著作之多 玉瑩珠聯 晚而際遇 如斗承天 邦之棟樑 民以陶甄 孝悌作賦 行在言前 時習有箴 人誦家傳”

115) 李垞, 『蒼石集』 卷15, <五賢廟蘇齋先生配享祭文>.

116) 金垞, 『溪巖日錄』 <1631年 10月 3日>, “至是康應哲 又以鄭判書意 主蘇齋升配之論 衆皆從之 其實非盡出於鄭 而康自爲之也 鄭公精神減耗 皆云不能明知也”

않고 향론을 미온적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경세의 기본 입장이다. 그가 1617년의 종향과 1631년의 승배를 목인했다고 해서 노수신에 대한 입장의 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준은 안동·예안권의 비판보다 정경세의 태도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승배가 실현되던 시점까지도 정경세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은 이준이 정경세에게 보낸 해명의 서한과 1632년에 지은 ‘題蘇齋詩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준은 승배가 완료된 뒤에도 노수신 변호를 위해 노년의 기력을 집중해야 했다.

우선 그는 정경세에게 보낸 서한에서 ①‘욕심은 사람의 본성이다[欲者人之性]’고 한 시구, ② ‘人心道心辨’에 대해 해명한다. ①에 대해서는 형기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書筵講義를 근거로 제시했고,<sup>117)</sup> ②에 대해서는 이미 이황의 規正을 거친 만큼 다시금 위의 시와 결부시켜 비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sup>118)</sup> 편지의 말미에서 그는 자신의 이 주장이 강좌 사람들의 의혹 해소에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데,<sup>119)</sup> 그가 설득하고자 했던 대상에 정경세가 포함되어 있음은 채론의 여지가 없다.

이준의 ‘소재변론’의 결정판은 1632년에 지은 ‘소재시 뒤에 제하다(題蘇齋詩後)’이다. 1631년 승배 당시 반대론은 예상보다 거셌던 것 같고,

117) 李垞, 『蒼石集』續集 卷4, <與鄭景任>, “近閱蘇齋集 見其論性處 多少洞快 尤信欲者人之性一句 乃就形氣上言 嘗爲此老每謂此性字指形氣而言 分疏雖力 人皆不信 今見此言 始知此見之不謬也 茲錄其說如左 朝講因不邇聲色而進言曰 蓋人之生也 性仁義禮智 然寓在形氣則不能無耳目口鼻愛惡之欲 舜所謂人心也 天理人欲 同行異情 聲色之心 堯桀無異 但中理中節爲天理 無理無節爲人欲 二者雜於方寸之間 不知所以治之 則人心之危 其發也如銛鋒悍馬 任情縱欲云云 夫人欲之非天性 凡人尙皆知之 豈此老之所昧 而人之攻之者甚迫 尙以爲歎 今幸所疑之始豁然也 若退溪先生之詩 恐是朋友間責望之語”

118) 李垞, 『蒼石集』續集 卷4, <與鄭景任>, “且念蘇老人心道心之辨 爲先生所嘗規正 豈非此老所見之差 而更加規益於此詩也 在先生規之則可矣 在後學不當輕論先輩也 程子嘗見門人好議前人過失 必曰汝輩且學他長處 誠後學之所服膺也”

119) 李垞, 『蒼石集』續集 卷4, <與鄭景任>, “鄭慶輔想在其處 切望同照 欲轉語江左諸益以解其疑也”

이 때만해도 이준은 빌미가 된 ‘認欲爲性’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반대론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노수신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범유조차도 모르지 않는 孟子의 性善說을 노수신과 같은 학식이 높은 이가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이었다. ‘題蘇齋詩後’의 찬술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작년 가을 소재를 오현묘의 종향위에서 배위로 승격하였는데, 사람들 중에 소재는 ‘欲’을 ‘性’으로 認知했으니 배향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다. 거기에 부화하는 이가 무리를 이룬데 그 태도가 너무도 견고하여 나로서는 이 주장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 孟子의 性善說은 그저 입으로만 이치를 떠벌리는 자들도 아는 것인데 하물며 소재와 같이 학식이 높은 이가 본성은 純善하여 人欲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맹자에 이르길, ‘그 시를 외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소재의 글을 읽는 것에 있을 뿐이다. 이에 본집을 취해 두루 열람했다.<sup>120)</sup>

『소재집』을 일람한 이준의 견해는 간명하다. 노수신이 성선설을 부정한 적이 없고, ‘欲’을 ‘性’이라고 한 것은 形氣 또는 氣質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오히려 그는 대의를 간과한 채 ‘욕심은 사람의 본성[欲者人之性]’이라는 이 5자에 집착하는 것은 원만한 논의가 아님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道心未發說’에 대해서는 이미 이황이 경계한 바 있고, 후학들 또한 이에 대해 평론을 가하는 것이 괴이한 것은 아니지만 論人에 있어 하나의 허물이 평생의 업적을 가릴 수 없음을 강조한다.<sup>121)</sup> 性惡說을 주장한 荀況과 ‘性三品說’을 주장한 韓愈도 문묘에 제향되었음을 거론하며 한 구절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수신의

120) 李垞, 『蒼石集』續集 卷5, <題蘇齋詩後>, “上年秋蘇齋自賢祠從祀而躋配位 人有言此老認欲爲性 不合配享 羣唱而和 堅不可破 …孟子性善之說 雖謔理於口舌者無不知之 況以蘇齋學識之高 而其不知本性之純善而無人欲之雜耶 孟子曰誦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然則今之所以解我之惑者 惟在於讀蘇齋之書乎 於是取本集遍閱之”

121) 李垞, 『蒼石集』續集 卷5, <題蘇齋詩後>, “且蘇齋道心未發之說 雖本程子之說 而實非朱子已定之論 則退溪先生之憂其或流於禪學 和其詩以規之者誠有所以 而後學之執此以爲言 亦無怪也 但先輩論人 不以一眚而掩其平生”

도남서원 배향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過論으로 규정했다.<sup>122)</sup>

이준의 논조는 점차 항변조로 바뀐다. 우선 그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황이 노수신의 학문, 특히 ‘夙興夜寐箴註解’를 인정했음을 거론하는<sup>123)</sup> 한편 어떤 사안에 대해 論難이나 講辨을 하기도 전에 貶斥부터 일삼는 論學論人의 부박한 풍조에 대해 일갈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송나라 楊簡이 불학에 경도되었지만 陳德秀가 그의 訓詁學的 업적을 인정한 예를 들며 수준 미달의 범유들이 노수신과 같은 석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에 대해 개탄을 감추지 않았다.<sup>124)</sup>

일정한 학문적 해명 논리에 인간적 감성이 더해진 이준의 이 ‘後題’는 형 李鼎을 비롯한 자제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를 열람한 이전은 혹시라도 남들이 이황과 다른 설을 주장한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복문인이었던 이준의 아들 李元圭가 정경세와 문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때 정경세는 노수신의 ‘欲性說’과 이준의 해명에 대해 정중한 語套에 냉소적인 語意를 투영시켜 노수신을 결코 이황에게 비견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것이 정경세의 본심인 양자의 분리이다.

어찌 소제와 같은 학문으로 性을 몰랐겠는가? 여기에는 필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퇴계와 설을 달리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을 우려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언덕은 뛰어넘을 수 있지만 仲尼(孔子)는 해와 달과 같은 분이라서 뛰어넘을 수가 없다. 비록 議論하기를 좋아하는 자라 하더라도 누가 퇴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영감(李峻)께서 논한 것은 蘇老를 위해 發明한

122) 李峻, 『蒼石集』續集 卷5, <題蘇齋詩後>, “故荀況之性惡 韓子之性有三品 猶得與於文廟之祀 今坐一句語未妥 橫皆豎斥 至謂不合於配享 無乃過矣乎”

123) 李峻, 『蒼石集』續集 卷5, <題蘇齋詩後>, “退溪先生嘗見夜寐箴之註 至有斯道不亡則此解必傳之稱”

124) 李峻, 『蒼石集』續集 卷5, <題蘇齋詩後>, “凡就所見 証正其非者 乃朱子與張呂二先生論難講卞 以一其歸之意也 而初非置之於貶斥之地 則豈今之身處堂下 眼在管中者之所得以歇看也 楊慈湖之學 泯心思談空妙 分明是佛學 而眞西山獨探討其訓詁 多所發明 先賢之折節先輩 不敢凌駕如是 而況於不爲慈湖者乎”

것에 지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인들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sup>125)</sup>

이후 이준은 1633년 이황·노수신의 手蹟을 合編한 ‘兩先生書帖’의 발문을 찬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서첩은 노수신의 증손 노준명이 장첩한 뒤 이준에게 발문[兩先生書帖跋]을 청한 것이다. ‘양선생서첩’이란 명칭에서 이미 친퇴계적 성격을 엿볼 수 있고, 이준의 발문 또한 그 취지를 충실하게 살려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발문은 위 인용문에 나타난 정경세의 ‘퇴계극존의식’에 대한 동조이자 자신의 후제[題蘇齋詩後:1632]에 대한 형 李垞의 우려, 즉 대 ‘退溪立議說’에 대한 소극적 해명의 과정으로 읽힌다.

퇴계·소재 두 선생은 한 시대에 나란히 태어나 의리의 은미함과 의심스런 예제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講辨하여 귀일시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런 사실은 문집을 상고해 보면 잘 알 수 있다.<sup>126)</sup>

이준은 의리와 예제에서의 講辨을 ‘서로 다름’에서 ‘같음’으로의 학문적 귀일의 과정으로 언명하고 있다. 그 행간에는 과거의 ‘달랐음’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펴박적 시선’은 합당하지 않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필자는 이것을 ‘鄭經世’, ‘李滉’, ‘朱子學’에 대한 ‘李垞’, ‘盧守愼’, ‘학문적 다양성’의 소극적 굴종이라 규정한다. 이준은 ‘소재변호’를 위해 노년의 기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것은 변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당시의 학문권력인 이황과 퇴계학파를 향해 타협의 손길을 뻗고 말았다. 물론 그는 사실상 생애 마지막 인물저작인 ‘蘇齋行狀’을 통해 노수신의 변호와 현창에 남은 기력을 죄다 투여하지만 그 또한 기존의 여러 글에서 반복했던 논리의 집합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125) 鄭經世, 『愚伏集』別集 卷8, <言行錄>, “豈以蘇齋之學而不識性 其必有所以矣 若至以異於退溪 慮有人言則不然 丘陵可踰也 仲尼日月也 不可踰也 雖有好議論者 孰不知退溪之不可踰乎 令監所論 不過發明蘇老耳 示人何妨”

126) 李垞, 『蒼石集』卷14, <兩先生書帖跋>, “退溪蘇齋兩先生 生竝一時 義理之微 禮制之疑 無不講其異而歸之一 今考諸文集 可以見矣”

## VI. 맺음말

정경세와 이준의 ‘소재인식’의 차이는 17세기 주자학적 패러다임의 강화, 영남의 ‘학문권력’으로서의 퇴계학의 권위 신장이라는 시대적 환경의 산물이다. 노수신에 대한 평가 속에는 한 개인의 성취를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주류가 제시하는 자[尺]를 통해 측량하고, 또 재단하는 주자학·퇴계학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다. 노수신이 학문적 집단 린치를 피해갈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준은 노수신을 眞心으로 존모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비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던 信實한 junior였지만 동시대 사람들을 설득할만한 학문적 식견과 논리를 갖추지는 못했다. 동시에 노수신을 향한 정경세의 의도적 외면은 학문 본위에 더해 학문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읽힌다. 즉, 그는 이황⇨류성룡을 거쳐 자신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퇴계학의 統緒를 순정하게 지켜야 하는 짐이 있었다. 노수신에 대한 인정은 자칫 ‘노수신과 류성룡의 傳授關係’로 확장될 수 있고, 이런 논리가 힘을 얻을 경우 자신이 목표했던 위의 학통적 계승구조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다. 즉, 정경세는 노수신과 류성룡 사이의 학문·인간적 친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 양자의 分離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분리의 귀결처는 이황⇨류성룡⇨정경세로의 학통 傳受權이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원전

『廬江志』

趙靖, 『黔澗集』

鄭侗, 『松塢集』

柳軫, 『修巖集』

蔡濟恭, 『樊巖集』

金覺, 『石川集』

鄭宗魯, 『立齋集』

沈喜壽, 『一松集』

金垞, 『溪巖日錄』

柳成龍, 『西厓集』

李宜顯, 『陶谷集』

朴承任, 『嘯臯集』

盧守愼, 『蘇齋集』

鄭經世, 『愚伏別集』

柳成龍, 『西厓集』

尹宣學, 『魯西遺稿』

尹根壽, 『月汀漫筆』

「月川門人錄」(光山金氏 後彫堂所藏本)

『愚伏先祖別集營刊時文蹟』(藏書閣, 愚伏宗宅 寄託)

李垞, 『蒼石集』·『蒼石續集』·『蒼石別集』

### 2. 논저

김광순·문경현·최증호, 「소재 노수신 연구-문학·정치·사상을 중심으로」, 『韓國의哲學』 1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9.

趙誠乙,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 『남명학연구』 1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0.

강정화, 「后溪 金範의 學問性向과 土意識」, 『南冥學研究』 10,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 2000.

김학수,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 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안동부사 재임」,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김학수, 「죽유 오운의 생애 : 학자·관료적 자취와 타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竹淵 吳澐』, 예문서원, 2018.

김학수, 「16~17세기 사림계의 ‘晦齋認識」, 『인류의 평화공존과 번영-주자와 회재에게 길을 묻다』, 2018년 한중 성리학 국제학술회의, 2018.

Abstract

## Jeong Gyeong-se and Yi Jun's Viewpoint on Sojae

- Based on Critical Absorption Theory of Jeong Gyeong-se and  
Successional Defense Theory of Yi Jun -

Kim, Hak-su

The governing ideology of Joseon was Neo-Confucianism, and it became "power" in the process of obsessing over ideological uniformity or pure blood. This sense of the ideological control of exclusive power penetrated deeply into other systems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such as Buddhism and Taoism, as well as into the Neo-Confucianism. At the vanguard, Yi Hwang, who was given the title of honor as 'Zhu Xi in the East', stayed solemnly.

No Su-sin's studies were a product of a great deal of effort but the contents were simple and sincere, and the use of his studies were aimed at aiding the king and the statecraft. However, his studies were ostracized by Yi Hwang, the scholarly forefather of the late 16th century Joseon, and this exclusion was branded passed on to Yi Hwang's younger scholars.

The article is based on two different viewpoints of Jeong Gyeong-se and Yi Jun, both who have their origin in Toegye studies—critical absorption theory of Jeong Gyeong-se and successional defense theory of Yi Jun. Why were the two men, who were even referred to as brothers, so nervous about the issue of No Su-sin? It was due to

the clash of authority that emphasized the purity of Neo-Confucianism or Toegye studies and the compromise which stressed the need for great achievement rather than small ruin and the Yeongnam School of the early 17th century never tolerated the latter. The breakdown of theory of compromise or defense was the process of submission to Yi Hwang's authority, and its end point was the thriving of Toegye studies.

**keywords**

No Su-sin, Yi Hwang, Ryu Seong-ryong, Jeong Gyeong-se, Yi Jun, Toegye School, Sojae Academic line, Donam Confucian Academy